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혜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이인영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혜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이인영

인 준 서

이인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김 명 선 (인)

심 사 위 원 서 수 연 (인)

심 사 위 원 박 혜 경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주의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들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청년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0대와 30대 성인 2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무선할당되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후 노인차별주의와 물질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들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글쓰기 과제를 통하여 자원 부족이 효과적으로 점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원 부족의 점화는 노인차별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은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추가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원 부족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이 자원 부족과 같이 누군가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공감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인 노인차별주의를 살펴보았으며, 추가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조절변수를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노인차별주의, 자원 부족, 물질주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절효과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7
1. 노인차별주의.....	7
-1) 노인차별주의.....	7
-2)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하는 이론들.....	9
2. 자원 부족.....	13
-1) 자원 부족의 정의.....	13
-2) 자원 부족의 집화.....	14
-3)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15
3. 물질주의.....	17
-1) 물질주의.....	17
-2) 물질주의와 노인차별주의.....	19
4. 자원 부족과 물질주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21
-1) 자원 부족과 물질주의.....	21
-2) 자원 부족과 물질주의 수준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22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25
IV. 연구 방법	26
1. 예비연구.....	26
-1) 점화 자극 구성.....	26
-2) 조작 점검.....	28
-3) 예비연구 결과.....	29
2. 본 연구.....	33
1) 연구참가자.....	33
2) 실험절차.....	34
-1) 일상 예상 과제.....	34
-2) 조작 점검.....	35
3) 측정도구.....	36
-1) 노인차별주의.....	36
-2) 물질주의.....	36
-3) 통제변수.....	37
-4) 인구통계학적 특성.....	39
4) 분석방법.....	40
V. 연구 결과	42
1.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42
2.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및 2 X 2 분산분석 결과.....	46
-1) 실험 조건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의 차이.....	49
-2) 실험 조건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물질주의의 차이.....	53
3. 자원 부족 점화에 대한 조작 점검 결과.....	56

- 4.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개인의 물질주의의 조절효과.....57
- 5.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60

VI. 논의.....67

- 1. 본 연구의 주요 결과.....67
- 2.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68
- 3. 추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73
- 4.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76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3
표 2.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45
표 3. 자원 부족 점화 조건에서 주요 변수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47
표 4. 통제 조건에서 주요 변수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48
표 5. 실험 조건과 성별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49
표 6. 실험 조건과 성별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49
표 7.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0
표 8.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50
표 9.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1
표 10.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51
표 11.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2
표 12.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52
표 13. 실험 조건과 성별에 따른 물질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3
표 14. 실험 조건과 성별에 따른 물질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53
표 15.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에 따른 물질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4
표 16.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에 따른 물질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54

표 17.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물질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5
표 18.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물질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55
표 19.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물질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6
표 20.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물질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56
표 21. 조건 간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	57
표 22.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 결과.....	58
표 23.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물질주의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59
표 24.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62
표 25.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건부 효과.....	63
표 26. 존슨-나이만 방법을 통한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75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25
그림 2.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자원 부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작용 효과.....	64
그림 3.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6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를 경험하며(왕명자, 2010), 인생의 마지막 발달 단계로써 노인이 된다. 이처럼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다. 예컨대, 틀니를 착용한 노인들을 조롱하는 뜻을 지닌 신조어 ‘틀딱충’과 큰소리로 대화하는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단어인 ‘할매미’, 그리고 연금을 받는 노인들을 얕잡아 이르는 ‘연금충’과 같은 다양한 노인 혐오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청년들의 40퍼센트는 위와 같은 노인 혐오 표현을 인터넷에서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세계일보, 2019). 또한,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노인을 공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동아시아에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한다(김옥, 2003; Luo, Zhou, Jin, Newman, & Liang, 2013). 오히려 동아시아로 대표되는 집단주의 문화권이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하여 노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메타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North & Fiske, 2015; Vauclair, Hanke, Huang, & Abrams, 2017). 더불어 한국 거주 노인의 86.2%가 의료진이 자신의 병을 나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 어떤 일을 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말을 듣는 것, 나이로 인해 고용을 거절당하는 것과 나이로 인해 선심을 받는 대상이 되거나 무시당하는 것 등과 같은 노인차별 가운데 최소 한 가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김옥, 2003).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한국의 문화적 산물(cultural products)에도

반영되어 있다. 창작 그림책에서의 노인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그림책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주로 집을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직업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었다(양유진, 오한나, 2018). 이외에도 광고에 나오는 노인들은 대개 흔들의자에 앉아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Butler, 1980), 뉴스에서 노인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단편 프레임이 적용된다(오현정, 신경아, 2019). 또한 1956년부터 1996년까지의 잡지 광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묘사한 광고는 줄어든 반면 부정적인 특성을 묘사한 광고는 늘어났다(Miller, Miller, McKibbin, & Pettys, 1999).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획일화되고 단편적이며 부정적인 노인의 특성을 접한 대중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을 일반화하여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박채리, 정순돌, 안순태, 2018; Lester & Ross, 2003).

종합하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4.9%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5년에는 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9).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차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사회 복지학(김육, 2002;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노년학(김주현, 2009; 김주현, 오혜인, 주경희, 2020), 사회학(이상림, 2009; 이지연, 한경혜; 2017)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노인차별주의, 즉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이에 따른 차별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주제가 가지는 심각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어떠한 사회적 상황이 사람들을 노인차별주의로 이끄는가? 이 질문에 대

해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North와 Fiske(2012)는 노인차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자원 위협으로 인한 세대갈등을 제안한 바 있다. North와 Fiske(2012)는 외집단이 자신의 집단의 성공, 성취 및 자원의 획득 기회 등을 위협할 때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극대화된다는 이론들을 통하여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하였다. 즉, 희소한 자원이나 공동의 목표를 두고 세대집단 간 경쟁이 심화될 때, 노인세대가 아닌 세대의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당장의 혜택은 노인세대에게 돌아가지만 부담은 청장년세대가 지는 국민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복지문제가 고려되고 있다(박진우, 2018). 더불어, 현재 한국 사회는 국민연금 고갈, 일자리 부족,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질 문제 등 사회·경제적, 환경적 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하여 식량 문제, 물 부족 등 자원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커진다는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자원 부족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 아닌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Chang, Krosch, & Cikara, 2016; Krosch, Tyler, & Amodio, 2017; Ospina, Cleveland, & Gibbons, 2019)들을 통해, 희소한 자원을 놓고 세대집단 간 경쟁이 심화될 때 노인세대가 아닌 집단들의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증가할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20, 30대 청년세대는 노인세대에 비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가용 자원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 상황에서 노인차별주의 경향성을 조절하는 개인차 변수로서 물질주의에 주목하였다. 물질주의는 돈과 같은 물질

적인 목표를 삶의 주된 목표로 삼는 동기 및 태도를 의미한다(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는 성격 특성이 아닌 개인의 삶에서 내리는 판단의 방향과 동기를 제공하는 가치관이다(Kasser, 2016). 즉, 물질주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발달과정에서 학습되며,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할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Kasser, 2016). 이러한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원하는 자원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집단에 대한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Theory; Davis, 1959)을 경험하고, 이러한 박탈감은 집단 간 편견과 갈등으로 이어진다(Roets, Van Hiel, & Cornelis, 2006).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때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즉, 사람, 돈, 체면, 명예 등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물질주의자들이 충분한 자원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경쟁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Sheldon, Sheldon, & Osbaldiston, 2000).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한국의 청년세대들은 물질의 획득을 주된 목표로 삼기 때문에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싶어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때 청년세대는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인세대가 자신보다 더 많은 자원을 쉽게 획득하고 있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 즉, 노인세대가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원을 빼앗아간다고 느끼면 그들에 대한 박탈감을 경험하고, 이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자원의 획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원 부족이 점화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차별은 노인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

컨대, 노인 스스로가 보고한 차별 경험은 우울과 정적인 연관성을 지닌다(박현식, 2008; 천희란, 김일호, 2017). 즉,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진철숙(2015)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지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할수록 노인 학대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노인들의 차별 경험은 그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노인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은 높은 노인 자살율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원인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논의한 바 있다(Lau & Pritchard, 2001; Osgood, 2000).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 스스로 차별 경험을 많이 보고할수록 자살사고(suicidal thoughts)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김영, 김남희, 2018; 조성희, 김경미, 2016). 이렇듯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은 노인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학대 및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을 밝히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과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 경향을 강화시킨다면,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이 이러한 경향성을 조절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물질주의 수준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바뀐다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차별의 개입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노인차별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물질주의 수준을 줄임으로써 노인차별주의 경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미래에 자신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예상하여 글을 쓰도록 함으로써 자원 부족 상황을 점화하였다. 그리고 연구참가자 개인이 지닌 물질주의 성향 및

노인차별주의적 태도는 선행 연구들에서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차별주의

1-1. 노인차별주의

노인차별주의는 ageism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Ageism은 Butler(1969)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한 연령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편견으로 정의되지만, 대개 노인을 향한 편견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Butler(1987, 1995)는 ageism이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이어 사회에 존재하는 세 번째 중요한 차별주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ageism은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되어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할 잠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구별된다(Palmore, 2001). 즉,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는 인종과 성별에 따라 그 편견을 피해갈 수 있으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인이 되므로 ageism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가능성을 지닌다(Butler, 1969).

Butler(1980)에 따르면, ageism은 구분 가능하면서도 상호 연관성이 있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로서, 다른 연령 집단이 노인에게 가지는 태도와 더불어 노인 스스로가 가지는 편견을 포함한다. 노인세대 이외의 연령 집단이 사용하는 노인 혐오 표현이나 노인들도 다른 연령 집단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병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가졌다고 일반화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 나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자기연령주의(Self-ageism); 김주현

등, 2020). 두 번째는 주로 고용 현장에서 행해지는 노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이다. 연령에 따라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Liden, Stillwell, & Ferris, 1996), 젊은 구직자와 동일한 조건을 지닌 고령의 구직자들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Avolio & Barrett, 1987)이 그 예이다. 마지막은 악의 없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영구화하고, 노인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기회를 줄이며,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관행과 정책이다. 즉, 세 번째 측면은 각종 정책이나 제도에서 노인을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배제하는 사회적 차별로서(천희란, 김일호, 2013), 주로 노인 임금 격차와 부당하게 업무를 배분하여 고령의 근로자를 소외시키는 등 노동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아시아경제, 2015)가 이 측면에 포함된다. 상기 언급한 위의 세 가지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상호 강화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는 데 기여한다(Butler, 1980).

한편, ageism은 ‘연령주의’(김주현, 2009; 황민영, 정순돌, 김주현, 2018), ‘연령차별’(김주현, 주경희, 오혜인, 2013; 신광영, 2011), ‘노인차별주의’(김옥, 2002;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천희란, 김일호, 2013) 등으로 다르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ageism을 ‘연령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한 김주현(2009)은 ‘연령차별’은 주로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용 분야 외에 가정, 복지, 의료, 개인의 가치관 등 더 넓은 사회적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령주의’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번역하였다고 설명하였다(김주현, 2009). 반면, 김옥(2002)과 김지연, 김민희와 민경환(2012)은 ageism을 다른 연령집단이 아닌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의미를 한정시키기 위하여 ‘노인차별주의’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바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geism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주로 사용되기는 하나,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정의되기 때문에(Butler, 1969), 젊은 세대, 중년 등 노인세대 외의 연령집단 또한 타연령 집단에 의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Nelson, 2002).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와 차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ageism을 ‘연령주의’가 아닌 ‘노인차별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2.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하는 이론들

그간 여러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론들을 통하여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 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을 때,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노인을 배척한다고 설명한다. 죽음과 가까이 있는 노인들이 죽음의 공포를 상기시킨다. 이때 사람들은 직면한 공포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신과 유사한 연령세대, 즉 노인세대가 아닌 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동시에 노인세대를 밀어내는 노인차별주의를 따른다는 것이다 (Greenberg, Schimel, & Mertens, 2004; Popham, Kennison, & Bradley, 2011). 이와 달리, Palmore(2003)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각되는 노인들의 외관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노인의 얼굴표정이 행복하기보다는 우울해보이기 때문에, 부정적 후광효과(negative halo effect)로 인하여 노인의 성격 또한 우울할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Palmore, 2003). 이 밖에, Nelson(2005)은 문명의 발전, 즉 인쇄기의 등장과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기존에 노인들을 통하여 전달되던 문화, 역사, 전통 등의 지식이 인쇄기의 발명으로 인하여 책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마을 역사가의 역할을 하던 노인들의 위상과 권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산업혁명은 가족의 결집이 아닌 이동을 요구하였는데, 무리의 이동을 위해서는 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적합한 까닭에 젊은 사람들에 비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

었다. 더불어, 산업혁명 이후 생겨난 여러 직업들은 젊고 더 강한 힘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더 적합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존경을 받던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지위를 잃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Nelson, 2005).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유한한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아닌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발생한다는 이론들을 통하여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집단 간 위협 이론(intergroup threat theory; Stephan & Renfro, 2004)과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Sherif, Harvey, White, Hood, & Sherif, 1961)이 이 차원에 속한다. 먼저 집단 간 위협 이론에 따르면,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 즉 외집단으로 인하여 내집단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다(Stephan, Ybarra, & Morrison, 2009). 즉, 노인세대 이외의 세대에게 노인세대가 위협이 된다고 인식될 때 이들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청년세대에게 노인세대가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으로 다가오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와 노인차별주의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밝힌 결과로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김지연, 민경환과 김민희(2014)는 청년 및 장년세대에게 노인세대가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는지 알아보는 ‘노인세대에 대한 위협 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척도와 노인차별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정치적 및 가치관 측면에서 노인세대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간 위협 이론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청년세대에게 외집단인 노인세대가 필요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청년세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될 때 노인세대에 대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에서는 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이 집단 간의 편견을 유발한다고 제안한다. North와 Fiske(2012)는 위 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차별주의가 유한한 자원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부족한 자원을 놓고 세대 간 경쟁이 심화될 때 청년세대가 노인세대를 이기적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늘어난 고령 인구와 국민연금 및 일자리 등의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세대 간 편견과 긴장이 증폭되면, 확대된 노인세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젊은 세대들이 노인차별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차별주의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로는 Ospina(2015)의 연구가 있다. Ospina(2015)의 연구에서는 하향취업(underemployment)과 직업 불안정성이 노인차별주의를 예측하는 변수임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능력보다 더 낮은 곳에 취직했다고 느끼는 경우와 직업 불안정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노인차별적인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를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미국의 경기침체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 늘어난 고령인구는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아있어 구직자들의 반발을 샀다. 즉,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와 같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하고, 이는 잠재적으로 집단 간 적대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은 일자리 문제로, 고령화, 일자리 부족, 저성장 등의 어려움이 겹쳐 전 세대가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이재경, 2018). 더불어, 주거 문제도 자원 경쟁에 따른 세대갈등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임대 주택에서 자신의 집을 갖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주거사다리’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저임금노동 및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주거사다리에 오르지 못하게 되어(이재경, 2018), 주거사다리에 오른 윗세대들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정리하면, 늘어난 고령 인구와 국민연금, 일자리 등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세대 간 편견과 긴장이 증폭되면, 확대된 노인세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젊은 세대들이 노인차별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이론적 입장 가운데 사회구조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노인 문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주현, 2009, 2015). 예컨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별, 즉 성차별주의(sexism)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이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여성의 지위가 변화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인종차별 또한 마찬가지였다(김주현, 2009). 즉, 사회적인 차별 문제는 그 문제를 유지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차별받는 대상의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는지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세대갈등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는 아니나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주목 받게 되었으며(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세대갈등의 주요 유발 요인으로 고려되기도 하였다(Riely, 1985). 이렇듯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연령 분포의 변화와 함께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양상의 갈등이 빈번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 대해 이미 여러 사회과학자들은 부족한 자원을 놓고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의 세대 간 경쟁이 임박한 것으로 추측하였다(Binstock, 2005; Dychtwald, 1999; Kingson &

Hirshorn, 1986; Minkler,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 차원 중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세대가 지닌 노인차별주의적 태도가 자원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자원 부족

2-1. 자원 부족의 정의

자원 부족(resource scarcity)의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르다. 예컨대, Cannon, Goldsmith와 Roux(2019)은 자원 부족을 “개인이 현재 지닌 자원 수준과 더 높고 바람직한 기준점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하거나 관찰하는 것”(p. 105)으로 정의하였다. Mehta와 Zhu(2016)는 “개인의 정상적인 성장(normal growth)과 유지(maintenance)에 필요한 물리적 자원의 지각된 공급 수준”(p. 768)으로 보았다. 더불어, Mullainathan와 Shafir(2013)는 자원 부족을 “자원보다 더 많은 필요(needs)를 가지는 주관적 감각(a subjective sense of having more needs than resources)”(p. 86), 즉, 개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가지길 원하는 자원이 더 많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 부족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관심을 둔 Hamilton 등(2019)은 “상품,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자신의 필요(needs)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것”(p. 2)으로 정의내렸다. 이렇듯 자원 부족에 대하여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여러 연구자들이 내린 정의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보유하기를 바라는 자원 간의 불일치’

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for review, see Cannon et al., 2019). 본 연구는 연구참가자 개인이 상상한 자원 부족에 관한 경험을 서술하도록 하는 점화방식을 사용할 것이므로, Metha와 Zhu(2016)의 정의를 차용하여 자원 부족을 ‘개인이 정상적인 삶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2. 자원 부족의 점화

자원 부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물이나 음식(Lee & Zietsch, 2011; Nelson & Morrison, 2005; Pitesa & Thau, 2018; Watkins, DeBruine, Little, Feinberg, & Jones, 2012)과 같은 필수 자원뿐만 아니라, 돈(Nelson & Morrison, 2005; Netchaeva & Rees, 2016; Sharma & Alter, 2012), 시간(Fernbach, Philip, Kan, & Lynch Jr, 2015; Shah, Mullainathan, & Shafir, 2012), 사회적 자원(예: 사회적 지지; Mead, Baumeister, Stillman, Rawn, & Vohs, 2011) 및 심리적 자원(특성과 능력; Brock & Brannon, 1992)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포괄한다. 심리학 연구에서 자원 부족은 일반적으로 점화로 조작되는데, 점화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Cannon et al., 2019). 구체적으로, 자원 부족은 개인의 인적 자원을 물리적으로 제한하거나 자원 부족에 대한 생각이 촉발되도록 유도하여 조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답을 추측할 수 있는 포인트수를 제한하거나(Shah et al., 2012), 연구참가자들에게 빈곤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 쓰도록 하는 방법(Briers & Laporte, 2013; Mehta & Zhu, 2016)으로 자원 부족을 조작할 수 있다. 또한, 자원 부족은 사회비교, 즉 연구참가자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유도할 수 있으며(Sharma & Alter, 2012), 연구참가자들에게 불황의 단서(Durante, Griskevicius, Redden, & White, 2015; White, Kenrick, Neel, &

Neuberg, 2013)와 같은 자원 부족에 대한 거시적 단서를 제시하여 조작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참가자들이 이용 가능한 제품의 수를 제한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Brannon & Brock, 2001; Inman, Peter, & Raghurir, 1997)을 사용해서도 자원 부족을 점화할 수 있다.

2-3.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편,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 부족과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Chang 등(2016)은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의 촉매제로 집단 간 위협을 언급하였다. 자원 부족은 집단 간 위협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공감, 지각적 판단 및 인지적 표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사람들은 자원 부족으로 인한 위협을 느낄 때 인종적, 성별,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외집단에게 덜 공감하고(Baston & Ahmad, 2009), 혼혈인종과 같은 모호한 인종 집단을 자신과 다른 인종으로 분류하였다(Ho, Sidanius, Cuddy, & Banaji, 2013; Krosch & Amodio, 2014). 또한, Krosch 등(2017)은 경제적인 자원 부족이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백인 연구참가자들에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펠로우십 기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자원 부족을 점화하였다. 그 후 각 연구참가자가 지닌 흑인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였고, 흑인과 백인에게 얼마만큼의 기금을 배분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원 부족이 점화된 조건에서 흑인에 대한 편견이 강한 연구참가자들은 백인보다 흑인에게 기금을 더 적게 할당하는 반면, 흑인에 대한 편견이 적은 연구참가자들은 백인보다 흑인에게 더 많이 할당하였다(연구 1과 2).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경제적 자원 부족이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행동이 자원 부족의 인식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족과 노인차별주의 및 성차별주의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추측해볼 수 있다. 먼저, North와 Fiske(2016)는 젊은 세대가 고령의 근로자에게 가지는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늘어난 노인세대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뉴스 기사를 통해 20대의 젊은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 부족을 점화하고, 은퇴를 거부하는 고령의 노인 Max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원 부족 점화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Max와 교류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 부족 조건 하에서 Max가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함께 전달받은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은퇴를 거부한다는 정보를 받은 연구참가자들이 Max와 교류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긴장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고령 근로자들을 배제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Ospina 등(2019)은 고용난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인식이 노령의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인차별주의 및 성차별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35세 미만의 성인 근로자들의 하향고용과 고용 불안 인식이 그들의 노인차별주의적 태도를 예측했으며, 이는 노인들에 대한 지각된 위협에 의해 매개되었다(연구 1). 이러한 결과는 35세 미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들이 인식한 고용 불안은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주의적 태도를 예측하였고, 이것은 여성에 대한 지각된 위협에 의해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 부족과 경쟁 조건 하에서, 전통적으로 비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던 집단이 보다 부정적으로(노인차별주의자 또는 성차별적 관점에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것은 성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노인차별주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원 부족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서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에 주목하였다. 즉, 개인이 지닌 물질주의 수준에 따라 자원 부족 상황에서의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조절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3. 물질주의

3-1. 물질주의

물질주의란 소유와 획득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만족과 안녕감의 수단 및 성공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Richins & Dawson, 1992). 이러한 물질주의 가치관은 인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성별, 인종, 국가와 상관없이 낮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 낮은 자존감, 높은 수준의 우울 및 불안과 일관된 상관을 보였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또한,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연구들에 따르면, 물질주의 가치관은 대학생들(장세진 등, 2016)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구재선, 2018)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한 고등학생들이 강한 사회비교 성향도 지닌 경우 우울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숙, 이

동귀, 2018). 더 나아가 물질주의는 여성의 외모지상주의와 신체 불만족을 증가시키는 원인변수임이 밝혀진 바 있으며(Ashikali & Dittmar, 2012),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는 다른 부유한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et, 2010).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는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해 있다(이민아, 송리라, 2014; Diener et al., 2010). Inglehart(1990)는 개인이 우선 순위로 두는 가치는 개인이 살아온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다는 결핍 가설(scarcity hypothesis)을 주창하였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비하여 물질의 획득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풍요로움과 안정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 자기 표현, 삶의 질 등을 강조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반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는 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가 지배적이다(Inglehart, 1971).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풍요로움을 경험하였으나, 경제적 안정을 경험하지 않았던 노인세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인다(성경룡, 2015). 또한 한국의 대학생들은 미국의 대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물질주의 가치관을 더 많이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재선, 서은국, 2015). 더불어 20, 30대인 청년들은 물질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에 이러한 노력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박정현, 2016). 한국의 청년층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많이 지니게 된 원인은 아직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청년세대의 장기적 취업난과 이들이 경험한 불안한 경제 상황을 원인으로 고려하기도 한다(박재홍, 강수택, 2012). 즉 Inglehart가 제안한 바와 같이, 취업난과 장기화된 경제불황 등 불안정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년세대는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물질주의적 가치를 내재화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청년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인 'Flex'의 유행이나 명품 소비 등의 물질주의를 조장하는 문화에 둘러싸인 것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 최근 젊은 층에서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인 'Flex'와 명품 소비 등 물질주의를 조장하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물질주의적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돈이나 사치품과 같은 자극만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점에서(Bauer, Wilkie, Kim, & Bodenhausen, 2012), 물질주의를 조장하는 문화에 둘러싸인 생활환경이 한국 청년세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3-2. 물질주의와 노인차별주의

한편,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물질주의와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나 물질주의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로 이 둘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Bauer 등(2012)에 따르면, 물질주의의 집착은 타인에 대한 경쟁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 의도를 감소시키며,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킨다. 더불어 명성과 경제적인 성공 및 매력적인 외모 등 외재적 목표(Ryan, Sheldon, Kasser, & Deci, 1996)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대상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Kasser, 2002). 반면, 자신의 건강, 공동체에 공헌하는 것, 친밀한 대인관계 및 개인의 내적 성장 등의 내재적 목표(Ryan, Sheldon, Kasser, & Deci, 1996)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장과 타인의 복지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신뢰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Duriez, Vansteenkiste, Soenens, & De Witte, 2007; Kasser, 2002). 그리고 이들은 타인을 대상화하기보다는 한 개인으로 바라보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덜 한다. 종합하면 내재적 목표를 지닌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외재적 목표를 지닌 사람들, 즉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소수 집단이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 집단에 대한 관심을 덜 가지는 동시에 차별적인 행동 또한 더 많이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흥임(2013)은 한국과 독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돈의 점화가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는지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실험 집단에게는 돈이 인쇄된 종이를, 통제 집단에게는 아무 그림도 인쇄되지 않은 흰색 종이를 제공하여 그 위에 여름방학 계획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글쓰기 과제 이후에는 노인에게 대한 태도를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독일 대학생들에 비하여 한국 대학생들이 노인에게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돈을 점화한 조건에서 통제 조건에 비하여 노인에게 대한 편견을 더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돈의 개념이 독일 대학생 집단에 비하여 물질주의 수준이 높은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더욱 강력히 활성화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돈의 개념이 활성화될 때 돈의 개념과 상반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도움의 가치가 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노인차별 문제는 돈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돈의 의미가 사람들의 정서와 사고,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쳐 타인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신흥임, 2013).

종합하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삶보다 개인적 삶에 더 치중하게 된다. 그리고 물질주의가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돈과 같은 외재적 목표와 상반되는 내재적 목표, 즉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덜 보고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높은 물질주의 수준을 지닌 사람이 자

원 부족 상황을 직면하면 노인차별주의적 태도를 더 많이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자원 부족, 물질주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4-1. 자원 부족과 물질주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은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Hamilton 등(2019)은 자원 부족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만족을 지연시키려는 의지, 타인에 대한 태도(orientation towards others), 자존감과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원이 부족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원 부족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데, 이때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보상 메커니즘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Sheldon과 Kasser(2008)는 사람들이 돈이나 유명세와 같은 외적인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언제,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밝히기 위한 변수로 실존적, 경제적 및 대인관계적 위협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 상황에서 위협을 조작하였을 때, 위협을 인식한 사람들이 위협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내적인 목표보다 외적인 목표를 더 추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 결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위협 모두 사람들이 외적인 목표에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연구 2에서는 경기불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자원 부족을 점화하였고, 그 결과로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외적인 목표, 즉 재정적 성공과 매력적인 외모 및 명성과 같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선

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실존적, 대인관계적, 그리고 자원 부족과 같은 경제적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개인적 성장이나 공동체를 위한 공헌과 같은 목표보다 경제적 성공이나 유명세 및 평판을 지향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과 함께, 부모들이 제공하는 사랑과 애정과 같은 무형의 가족 자원이 자녀들의 물질주의와 지나친 소비 지향성을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Baker et al., 2013)를 통하여 경제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원 부족도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자원 부족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거나 자존감 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외재적 목표와 같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향하게 된다.

4-2. 자원 부족과 물질주의 수준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그렇다면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에 따라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인가? 이는 집단 갈등의 도구적 모델 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갈등의 도구적 모델(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Esses, Jackson, & Armstrong, 1998)은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Sherif, 1966; Sherif et al., 1961)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자원 스트레스가 집단 간 경쟁을 촉진한다고 제안하였다. 자원 스트레스(resource stress)란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으로 인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을 인지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돈과 같은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권력, 일자리 등의 자원이 포함된다(Esses et al., 1998). 정리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아닌 외집단이 한정된 공공의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인식하면 자원 스트레스가 촉발되고, 이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집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강한 스트레스를 보일 것으로 추론된다.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는 외집단

태도를 예측하는 개인차 변수인데, 외재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민자와 같은 외집단이 자신의 집단의 가치관과 안전 및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uriez, Meeus, & Vansteenkiste, 2012). 더불어, 돈이나 명성과 같은 외재적 보상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자는 친밀감이나 자기수용과 같은 내재적 보상을 중시하는 개인보다 공유된 자원 풀(pool)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갔는데(Sheldon & McGregor, 2000), 이는 외재적 동기에 초점을 둔 개인이 공동의 자원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보다 경쟁하기를 택하기 때문이다(Sheldon et al., 2000).

종합하면, 특정 집단이 나의 집단과 공동의 자원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인식되면 자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잠재적 경쟁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갈등 상황에서 외재적 가치를 지향하는 물질주의자들이 더욱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경쟁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sses 등(1998)에 따르면, 자원 스트레스로 인한 집단 갈등 상황에서는 자원을 획득하는 데 능숙하거나, 자원의 획득을 위한 외부 지원을 받거나, 자원 획득을 위하여 기꺼이 투쟁할 의지가 있는 특성을 지닌 집단들은 잠재적인 외집단으로 인식되기 쉽다. 노인세대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한 기술과 자산이 많은 동시에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한국의 청년세대에게 잠재적인 경쟁 집단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재적 보상을 얻고 획득하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표인 청년 물질주의자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 풀에서 노인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세대가 자신이 가져가야 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인지한다면 그들을 타자화할 것이고, 이는 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물질주의 수준

에 따라 노인차별주의적 태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높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청년들은 자원 부족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낮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청년들은 자원 부족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덜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특성과 개인의 특성들을 밝힘으로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인차별주의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 문제 1.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1. 자원 부족의 점화는 20, 30대 성인들의 노인차별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다.

연구 문제 2.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가설 2.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원 부족이 20, 30대 성인들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강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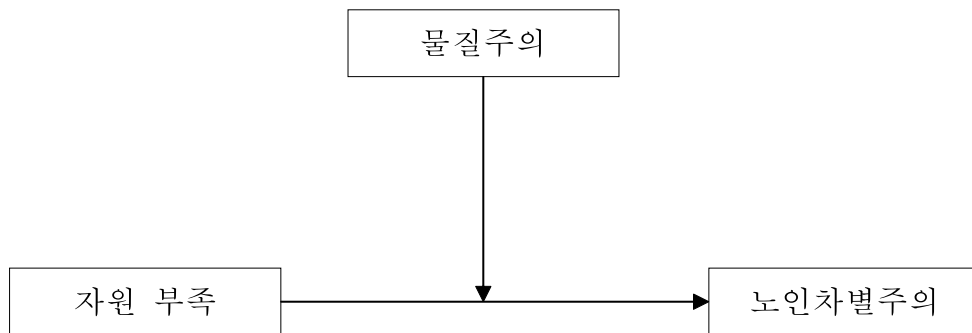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 방법

1. 예비연구

1-1. 점화 자극 구성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 부족 상황을 점화하는 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자원 부족 상황을 점화하는 데 사용되었던 일상 예상 과제와 사진 제시 과제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일상 예상 과제는 Roux, Goldsmith와 Bonezzi(2015)가 Fischhoff, Gonzalez, Small과 Lerner(2003)의 정서 점화 과제에서 착안하여 구성한 과제인 일상 회상 과제를 예비연구에 맞게 수정한 과제이다. Roux 등(2015)은 자원 부족 상황을 점화하기 위하여 연구참가자들에게 과거에 자원이 부족하였던 경험을 떠올린 후 그것을 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일상 회상 과제(episode recall task)를 사용하였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은 대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오래 기억하므로(e.g., Bless, Mackie, & Schwarz, 1992; Pratto & John, 1991), 과거에 자원이 부족했던 경험을 기술하도록 하는 일상 회상 과제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자원 부족 상황을 생생하게 점화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상은 틀리기 쉬운 추정치로(Kahneman, 1999),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낙관적(rosy)으로 변화하고(Mitchell, Thompson, Peterson, & Cronk, 1997), 그에 따라 정서의 강도 또한 줄어들어 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회상된 부정 경험은 설령 정확하다 할지라도 강도는 이전보다 강렬하지 않다.

더불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하는 것보다 미래에 겪을 일을 추측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강력한 정서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e.g., Lench et al., 2019; Wirtz, Kruger, Scollon, & Diener, 2003). 이러한 미래 예상 방식은 물건을 구매하는 미래 상황을 떠올려 그때 느낄 죄책감을 기술하여 점화하기도 하고(양윤, 박민지, 2014), 긍정적인 미래 사건을 떠올림으로써 폭식장애 경향성을 지닌 대학생들의 충동성을 완화하는 개입을 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손정원, 현명호, 2020). 이에 따라, 강력한 점화 조작을 위하여 본 예비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의 과거 경험이 아닌 미래 경험을 상상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 부족 조건(실험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자원이 부족할 때 벌어질 일들을 3개 혹은 4개 정도 떠올린 후, 그 중 두 가지가 실제로 벌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각각 자세히 묘사하도록 하였다. 통제 조건의 경우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떠올리는 측면에서는 실험 조건과 유사하지만, 자원 부족이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하여 상상하도록 하였다.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상적인 경험을 하게 될지를 3개 혹은 4개 정도 떠올린 후, 그 중 두 가지가 실제로 벌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자세히 묘사하도록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사진 제시 과제에서는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묘사된 사진들을 제시하여 자원 부족을 점화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e.g., Fan, Li, & Jiang, 2019; Hill, Rodeheffer, Griskevicius, Durante, & White, 2012; Mehta & Zhu, 2016; Rodeheffer, Hill, & Lord, 2012) 사용된 사진들을 참고하여 연구참가자들에게 제시될 점화 자극을 제작하였다. 점화 자극은 조건 당 4장의 사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 하단에 3줄 정도의 설명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자원 부족 조건에서는 연구참가자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사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1) 실질 국내총생산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 (2)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 (3) 녹아버린 빙하 위에 올라간 북극곰, 그리고 (4) 식량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를 제시하였다. 통제 조건의 경우,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사진들과 유사하지만 자원 부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사진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참가자들이 앞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취미활동에 대한 사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1) 페이스북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 (2)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 (3) 서핑하는 여성, 그리고 (4) 국내여행이 각광받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세계 지도를 제시하였다.

1-2. 조작 점검

점화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Roux 등(2015)에서 사용되었던 조작 점검 문항과 함께 본 연구에 맞게 제작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원 부족을 점화한 선행연구들은(e.g., Barrita & Keltner, 2017; Goldsmith, Roux, & Ma, 2018; Roux et al., 2015; Salerno & Sevilla, 2019; Wang, You, & Yang, 2020) ‘나의 자원은 부족하다’, ‘나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와 ‘나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의 총 네 가지 문항을 사용하여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 부족의 점화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예비연구에서는 조작 점검 문항들과 함께 사용할 문항들을 탐색하고자 미래 초점 관련 문항 네 가지를 제작하여 분석에 추가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에서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상상하도록 하거나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였으므로,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조건 간 유사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나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였다’, ‘나는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하여 잠깐이나마 상상하였다’ 및 ‘나는 과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 관련 문항 4개와 미래 관련 문항 4개, 즉 총 8개의 문항에 6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6: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원 부족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실험 조건의 점수가 더 높을 것이고, 미래 초점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조건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조작 점검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일상 예상 과제를 사용하였던 예비연구에서 $\alpha=.596$ (자원 부족 관련 문항 $\alpha=.695$, 미래 초점 관련 문항 $\alpha=.313$), 사진 제시 연구를 사용하였던 예비연구에서 $\alpha=.527$ 이었다(자원 부족 관련 문항 $\alpha=.588$, 미래 초점 관련 문항 $\alpha=.334$).

1-3. 예비연구 결과

예비연구의 참가자들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성인들이었다. 일상 예상 과제를 사용한 연구와 사진 제시 과제를 사용한 연구에는 각기 다른 연구참가자들이 참여하였다. 먼저 일상 예상 과제가 사용된 연구에는 172명이 참여하였으나, 불성실 응답자 및 연령 기준에 맞지 않는 연구참가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일상 예상 과제가 사용된 연구에는 총 93명(여성 40명, 남성 53명; 연령 $M=26.54$, $SD=4.02$)이 포함되었으며, 자원 부족 조건에 44명, 통제 조건에 49명이었다. 다음으로, 사진 제시 과제가 사용된 연구에는 159명의 연구참가자들이 모집되었으나, 일상 예상 연구와 마찬가지로 불성실 응답자 및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참여자 75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사진 제

시 과제가 사용된 연구에는 총 84명(여성 68명, 남성 16명; 연령 $M=23.20$, $SD=3.83$)의 연구참가자가 포함되었으며, 자원 부족 조건에 38명, 통제 조건에 46명이었다.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 조건과 통제 조건에 각각 무선할당되었으며, 일상 예상 과제가 사용된 연구와 사진 제시 과제가 사용된 연구 모두 점화자극 제시 이후 조작 점검 문항에 답하였다.

일상 예상 과제와 사진 제시 과제 중 본 연구를 위한 점화 과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과제 별로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한 조건 간 응답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과제 별로 자원 부족 상황의 점화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건(실험 조건 vs. 통제조건)을 독립변수로, 4개의 자원 부족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평균낸 값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자원 부족 관련 문항들에 대한 조건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상 예상 과제가 사용된 연구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자원 부족 관련 문항에 대한 조건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91)=-3.452$, $p<.01$). 자원 부족 조건($M=4.65$, $SD=.96$)이 통제 조건($M=4.01$, $SD=.81$)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원 부족 상황의 점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진 제시 과제가 사용된 연구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자원 부족과 관련된 문항들에서 자원 부족 조건($M = 4.21$, $SD = .67$)과 통제 조건($M = 4.35$, $SD = .65$) 간 반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82)=-.954$, $p=.343$).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진 제시 과제가 사용된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 상황이 제대로 점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탐색적인 목적으로 추가하였던 문항들에 대한 분석으로, 과제 별로 미래 초점 관련 문항들에 대한 조건 간 응답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래 초점 관련 문항들에 대한 조건 간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건(실험 조건 vs. 통제조건)

을 독립변수로, 4개의 미래 초점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평균낸 값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조건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상 예상 과제를 사용한 연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미래 초점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조건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91)=-3.960$, $p<.001$). 자원 부족 조건($M=5.20$, $SD=.52$)이 통제 조건($M=4.67$, $SD=.78$)에 비하여 미래 초점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보다 미래에 있을 일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어 생각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진 제시 과제를 사용한 연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미래 초점 관련 문항들 또한 자원 부족 조건($M = 4.34$, $SD = .63$)과 통제 조건($M = 4.16$, $SD = .55$) 간 응답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82)=1.435$, $p=.155$).

상기 결과를 종합하면, 일상 예상 과제를 사용한 연구는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 부족을 효과적으로 점화하였으나, 사진 제시 과제를 사용한 연구는 그렇지 못하였다. 사진 제시 과제의 경우, 연구참가자들이 대부분 핸드폰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작은 화면으로 제시되는 자극들을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상 예상 과제는 연구참가자들이 직접 글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탈락율은 높으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점화가 이루어지므로 최종 연구참가자들에게 점화 효과가 의도했던 대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떠올리고 그것을 글로 쓰는 방식으로 자원 부족을 점화하였다.

한편, 탐색적으로 추가한 미래 초점 관련 문항들은 기존에 타당화된 적 없는 새로운 질문들로, 일상 예상 과제가 사용된 연구와 사진 제시 과제가 사용된 연구 모두에서 내적합치도가 .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초점 관련 문항들이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부분

을 제대로 짚어내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기존 자원 부족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조작 점검 문항들만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2. 본 연구

1)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청년세대, 즉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청년세대의 연령 기준은 청년 임대주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복지정책의 기준 연령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연구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조사회사에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20, 30대 성인 25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¹⁾. 그러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연구참가자들(예: 두 가지 모두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거나 의미없는 단어들을 나열한 경우)과 내용에 맞지 않는 응답을 한 연구참가자들(예: 자원 부족 혹은 일상경험과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을 제외하여, 총 21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의 성별은 여성 113명(51.6%), 남성 106명(48.4%)으로 비교적 균등하였다. 그리고 연구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20세에서 3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9.68세였다($SD=5.54$). 연구참가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48.9%, 30대가 51.1%로 20대와 30대에 걸쳐 균등히 분포되었다.

1)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크기 .1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인 경우 회귀 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최소 176명의 연구참가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포함된 글쓰기 과제 특성 상 탈락율과 불성실 응답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250명의 연구참가자를 모집하였다.

2) 실험절차

본 연구는 참가자 모집에 앞서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SSWUIRB-2020-014)을 받았다. 연구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먼저 연구참가자들은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전 동의란에 체크하고 질문지 작성을 시작하였다.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 점화를 위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 후, 조작 점검 문항과 노인차별주의 척도에 답하였다. 반면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일상생활 사건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 후, 자원 부족 조건과 동일한 조작 점검 문항과 노인차별주의 척도에 응답하였다. 노인차별주의 척도에 응답한 후에는, 두 조건의 연구참가자들 모두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척도에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질문들(성별, 연령, 거주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노인 접촉 경험 등)에 응답하였다. 연구 종료 후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는 문장을 제시하였다. 이때 연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사후설명을 원하는 연구참가자들이 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제시하였다. 모든 연구참가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조사회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제공받았다.

2-1. 일상 예상 과제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 부족 상황을 점화하기 위하여 예비연구를 통해 결정한 과제를 사용하였다. Roux 등(2015)의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 상황을 점화하기 위하여 연구참가자들에게 과거 자원이 부족하였던 경험을 쓰게 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이

아닌 연구참가자들의 미래 경험을 상상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원 부족 조건(실험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미래에 자원이 부족할 때 벌어질 일들을 3개나 4개 정도 떠올린 후, 그 중 두 가지가 실제로 벌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각각 자세히 묘사하였다(예: ‘자원이 고갈된다면 남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과는 상상하기 힘든 경쟁이 있을 것이다’, ‘자원이 고갈되면 일할 의지를 상실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사회가 될 것이다’). 통제 조건의 경우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떠올리는 측면에서는 실험 조건과 동일하지만, 자원 부족이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하여 상상하도록 하였다. 즉,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상생활 경험을 하게 될지를 3개나 4개 정도를 떠올린 후, 그 중 두 가지가 실제로 벌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자세히 묘사하였다(예: ‘집으로 운전해서 귀가할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할 것이다’).

2-2. 조작 점검

점화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Roux 등(2015)에서 사용되었던 조작 점검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나의 자원은 부족하다’, ‘나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와 ‘나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총 4개의 문항에 대하여 6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원 부족 상황이 효과적으로 점화된다면, 위 4개의 문항들에 대하여 실험 조건의 점수가 통제 조건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Roux 등(2015)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2였다.

3) 측정도구

3-1. 노인차별주의

연구참가자들의 노인차별주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Fraboni, Saltstone 과 Hughes(1990)가 개발한 노인차별주의 척도(Fraboni Scale of Ageism; 이하 FSA)를 김지연, 김민희와 민경환(2012)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FSA는 총 29문항으로, 적대적인 말(antilocution), 회피(avoidance) 및 차별(discrimination)과 같은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지연 등(2012)이 번안·타당화한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는 내적합치도를 낮추는 문항들과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교차부하된 문항들을 제거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은 정서적 회피 7문항(예: ‘나는 개인적으로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노인들의 모임에 초대받아도 가고 싶지 않다’), 차별 5문항(예: ‘노인들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좋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주어서는 안 된다’) 및 고정관념 6문항(예: ‘대부분의 노인들은 과거 속에 갇혀 산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불평이 많다’)이다. 연구참가자들은 각 문항들에 대해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6점(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김지연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1(정서적 회피 .82, 차별 .61, 고정관념 .6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정서적 회피 .85, 차별 .54, 고정관념 .77)이었다.

3-2. 물질주의

연구참가자들의 기질적인 물질주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를 유지혜와 설경옥(2018)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Richins와 Dawson(1992)의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유지혜와 설경옥(2018)의 연구에서는 문화마다 해석이 다른 것으로 알려진 3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는 성공판단 5문항(예: '나는 고가의 집,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부럽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이다'), 소유중심 6문항(예: '나는 호화로운 삶이 좋다',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행복추구 4문항(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이 있다. 연구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6점(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적 태도를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지혜와 설경옥(201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6(성공판단 .68, 소유중심 .71, 행복추구 .6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성공판단 .77, 소유중심 .71, 행복추구 .64)이었다.

3-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인 접촉 경험을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먼저 자원 부족의 점화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호작용하여 물질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e.g., Roux, Kim, Goldsmith, & Blair, 2014), 연구참가자들의 사

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에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의 교육 수준과 월 평균 가계소득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보았으며, McArthur의 사다리(Adler, Castellazon, & Ickovic, 2000)를 사용하여 연구참가자들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였다.²⁾

다음으로, Allport(1954)는 집단 간의 접촉을 통하여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과의 동거 경험(Ishii & Tado'oka, 2015) 및 노인과의 접촉 경험(김민희, 2013; Allan & Johnson, 2008; Boswell, 2012; Lytle & Levy, 2019; Stewart, Giles, Paterson, & Butler, 2005; Tam, Hewstone, Harwood, Voci, & Kenworthy, 2006; Van Dussen & Weaver, 2009)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노인과의 동거 경험을 진위형 문항(1=예, 2=아니오)으로 측정하였다. 더불어 Hutchison, Fox, Laas, Matharu와 Urzi(2010)가 개발하고 김지연 등(2012)이 번안한 노인 접촉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과 교류한 경험과 빈도를 측정하고 분석 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노인 접촉 척도는 총 6문항으로, 접촉빈도 3문항(예: '내가 자랐던 동네에는 노인들이 많았다', '과거에 나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노인들과 교류했었다')과 접촉의 질 3문항(예: '나는 노인들과 좋았던 경험이 많이 있다', '과거에 노인들과 함께 했던 기억은 나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가자들은 모든 문항에 6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전적으로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과 긍정적인 접촉을 많이, 그리고 자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Hutchison 등(2010)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접촉빈도 .62, 접촉의 질 .6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4(접촉빈도 .70, 접촉의 질

2) 연구참가자들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요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분석 시 통제변수로 투입하지 않았다.

.85)였다.

3-4.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직업, 최종 학력 및 종교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정희와 임병우(2017)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 및 종교가 대학생들의 노인집단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의 성별과 종교 유무를 측정하여, 이에 따른 노인차별주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가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조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닌지 여부로 나누어 코딩하였다(1: 현재 조부모와 동거 중, 2: 현재 조부모와 동거 중이 아님).

4) 분석방법

SPSS 25.0 버전과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 및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 간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단순상관분석 및 2 X 2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원 부족의 점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은 집단 변수로 투입하였고, 조작 점검 문항들에 대한 응답 평균은 종속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자원 부족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자원 부족 점화 조건(실험 조건)을 1, 통제 조건을 0으로 더미코딩하여 예측변수로 투입하고, 노인차별주의를 결과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자원 부족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Hayes, 2017) model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 조건(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을 예측변수로, 물질주의 수준을 조절변수, 노인차별주의는 결과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예측변수는 실험 조건을 1, 통제 조건을 0으로 더미코딩하여 투입하였으며, 결과변수와 조절변수인 물질주의 수준과 노인차별주의는 다중공선성 문제와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홍세희, 2020; Hayes, 2017)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

다섯째,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존슨-나이만 기법(Johnson-Neyman

technique, J-N)을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V.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분석에 앞서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표 1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차별주의, 물질주의와 같은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가자들의 노인차별주의는 평균 3.22($SD=0.65$)였으며, 조절변수인 물질주의는 평균 3.63($SD=0.73$)이었다. 또한 연구참가자들이 보고한 노인 접촉 경험은 3.25($SD=0.94$)였다. 월 평균 가계 소득은 평균 4.83($SD=2.46$)으로, 25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연구참가자들의 수가 35명(16.0%)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는 평균 5.00($SD=1.55$)였으며, 5와 6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연구참가자들의 수가 각각 51명(23.3%)과 55명(25.1%)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9와 10이라고 응답한 연구참가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참가자들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27명(58.0%)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직원 79명(36.1%), 무직, 학생, 주부 77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참가자들의 종교는 무교가 155명(70.8%)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가자들의 가족 구성원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을 살펴본 결과, 현재 조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연구참가자가 200명(91.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전에 노인과 동거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참가자들은 116명(53.0%)으로, 동거 경험이 없는 연구참가자들(103명, 47.0%)보다 많았다.

표 1.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19)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조건	자원 부족 점화	109	49.8
	통제 조건	110	50.2
성별	남성	106	48.4
	여성	113	51.6
연령	20대	107	48.9
	30대	112	51.1
종교	개신교	38	17.4
	천주교	12	5.5
	불교	12	5.5
	무교	155	70.8
	기타	2	0.9
종교 유무	유	64	29.2
	무	155	7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43	19.6
	전문대학 졸업	40	18.3
	4년제 대학교 졸업	127	58.0
	대학원 석사 졸업	6	2.7
	대학원 박사 졸업	3	1.4
월 평균 가계 소득	150만원 이상	14	6.4
	151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31	14.2
	25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5	16.0
	351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25	11.4
	451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30	13.7
	551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28	12.8
	651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17	7.8
	751만원 이상 850만원 이하	19	8.7
	851만원 이상 950만원 이하	12	5.5
	951만원 이상	8	3.7
현재	1	4	1.8
주관적	2	10	4.6
사회경제적	3	27	12.3

	4	35	16.0
	5	51	23.3
지위	6	55	25.1
	7	32	14.6
	8	5	2.3
	전문가	18	8.2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1.8
	사무직원	79	36.1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17	7.8
직업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1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6	2.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근로자	2	0.9
	단순노무직	1	0.5
	무직, 학생, 주부	77	35.2
	기타	14	6.4
현재	동거 중	19	8.7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동거 중이 아님	200	91.3
노인과의	동거 경험 있음	116	53.0
동거 경험	동거 경험 없음	103	47.0

표 2.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N=219)

	1	2	3	4	5	6	7	8
1	1							
2	.037	1						
3	-.515***	.120	1					
4	-.116	.033	-.020	1				
5	-.119	-.072	.139*	-.379**	1			
6	-.148*	-.086	.111	.028	.101	1		
7	-.014	-.116	.092	.016	.235***	.329***	1	
8	.121	-.045	.003	-.445***	.488***	.020	.005	1
<i>M</i>	3.22	3.63	3.25	6.60	5.48	4.83	5.00	29.68
<i>SD</i>	0.65	0.73	0.94	3.16	0.89	2.46	1.55	5.54

주. 1=노인차별주의, 2=물질주의, 3=노인 접촉 경험, 4=직업, 5=최종 학력, 6=월 평균 가계 소득, 7=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8=연령

* $p < .05$, ** $p < .01$, *** $p < .001$.

2.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및 2 X 2 분산분석 결과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 부족 점화 조건에서 조절변수인 물질주의와 결과변수인 노인차별주의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05$, $p=.595$. 결과변수인 노인차별주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접촉경험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58$, $p<.001$. 그러나 직업, 최종 학력, 월 평균 가계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인차별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ps>.05$. 다음으로, 통제 조건에서도 조절변수인 물질주의와 결과변수인 노인차별주의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03$, $p=.776$. 결과변수인 노인차별주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직업,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은 노인차별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ps>.05$), 노인접촉경험($r=-.46$, $p<.001$), 최종학력($r=-.25$, $p<.01$)과 월 평균 가계소득($r=-.22$, $p<.05$)은 노인차별주의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 모두에서 조절변수인 물질주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ps>.05$.

표 3. 자원 부족 점화 조건에서 주요 변수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n=109$)

	1	2	3	4	5	6	7	8
1	1							
2	.051	1						
3	-.575***	.068	1					
4	-.140	.022	.015	1				
5	.010	.036	.108	-.453**	1			
6	-.064	-.099	.182	.057	.014	1		
7	.042	-.186	.093	.080	.188*	.348***	1	
8	.168	.017	.076	-.489***	.598***	.002	.014	1
<i>M</i>	3.19	3.67	3.22	6.59	5.43	4.99	4.84	29.69
<i>SD</i>	0.63	0.74	1.00	3.08	0.91	2.44	1.43	5.73

주. 1=노인차별주의, 2=물질주의, 3=노인 접촉 경험, 4=직업, 5=최종 학력, 6=월 평균 가계 소득, 7=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8=연령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통제 조건에서 주요 변수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n=110$)

	1	2	3	4	5	6	7	8
1	1							
2	.027	1						
3	-.460***	.183	1					
4	-.095	.044	-.057	1				
5	-.248***	-.179	.173	-.309***	1			
6	-.220*	-.081	.039	.001	.196*	1		
7	-.065	-.048	.087	-.035	.272**	.330***	1	
8	.076	-.111	-.083	-.403***	.367***	.039	-.004	1
<i>M</i>	3.24	3.60	3.28	6.62	5.53	4.67	5.15	29.67
<i>SD</i>	0.68	0.73	0.89	3.26	0.86	2.49	1.66	5.37

주. 1=노인차별주의, 2=물질주의, 3=노인 접촉 경험, 4=직업, 5=최종 학력, 6=월 평균 가계 소득, 7=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8=연령

* $p < .05$, ** $p < .01$, *** $p < .001$.

2-1. 실험 조건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의 차이

실험 조건과 성별, 종교 유무, 조부모와 동거 여부 및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라 주요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 X 2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실험 조건과 성별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하였으며, 결과를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2(실험 조건: 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 x 2(성별: 여성 vs. 남성) 분산분석 결과, 실험 조건($F(1, 215)=.286, p=.637$)과 성별($F(1, 215)=.223, p=.593$)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조건과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15)=.039, p=.843$).

표 5. 실험 조건과 성별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N=219)

실험 조건	성별	<i>M</i>	<i>SD</i>	<i>n</i>
자원 부족 점화	여성	3.16	.60	55
	남성	3.22	.66	54
	합계	3.19	.63	109
통제	여성	3.23	.70	58
	남성	3.25	.66	52
	합계	3.24	.68	110
합계	여성	3.20	.65	113
	남성	3.24	.66	106
	합계	3.22	.65	219

표 6. 실험 조건과 성별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N=219)

	자유도	<i>F</i>	<i>p</i>
실험 조건	1	.286	.637
성별	1	.223	.593
실험 조건 X 성별	1	.039	.843
오차	215		

다음으로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하였으며, 결과를 표 7와 표 8에 제시하였다. 2(실험 조건: 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 x 2(종교: 있음 vs. 없음) 분산분석 결과, 실험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F(1, 215)=.692, p=.406$), 종교 유무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1, 215)=4.160, p<.05$). 구체적으로, 종교를 가진 연구참가자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노인차별주의 경향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_{종교있음} = 3.08, M_{종교없음} = 3.27$).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15)=.332, p=.565$).

표 7.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N=219)

실험 조건	종교 유무	M	SD	n
자원 부족 점화	종교있음	3.01	.51	29
	종교없음	3.26	.66	80
	합계	3.19	.63	109
통제	종교있음	3.14	.65	35
	종교없음	3.29	.69	75
	합계	3.24	.68	110
합계	종교있음	3.08	.59	64
	종교없음	3.27	.67	155
	합계	3.22	.65	219

표 8.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N=219)

	자유도	F	p
실험 조건	1	.692	.406
종교 유무	1	4.160	.043
실험 조건 X 종교 유무	1	.332	.565
오차	215		

또한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하였으며, 결과를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2(실험 조건: 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 x 2(노인과의 동거 경험: 있음 vs. 없음) 분산분석 분석 결과, 실험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F(1, 215)=.620, p=.432$) 노인과의 동거 경험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1, 215)=5.624, p<.05$). 구체적으로, 노인과의 동거하였던 경험이 있는 연구참가자들이 동거 경험이 없는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노인차별주의 경향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_{동거경험\ 있음} = 3.12, M_{동거경험\ 없음} = 3.33$).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15)=.408, p=.524$).

표 9.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N=219)

실험 조건	노인과의 동거 경험	M	SD	n
자원 부족 점화	있음	3.05	.65	51
	없음	3.32	.59	58
	합계	3.19	.63	109
통제	있음	3.18	.67	65
	없음	3.33	.69	45
	합계	3.24	.68	110
합계	있음	3.12	.66	116
	없음	3.32	.63	103
	합계	3.22	.65	219

표 10.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N=219)

	자유도	F	p
실험 조건	1	.620	.432
노인과의 동거 경험	1	5.624	.019
실험 조건 X 노인과의 동거 경험 오차	1	.408	.524
	215		

마지막으로,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과거 노인과의 동거하였던 경험을 의미하는 노인과의 동거 경험과는 달리, 노인과의 동거 여부는 연구참가자들이 현재 노인과의 동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실험 조건: 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 x 2(노인과의 동거 여부: 동거 중 vs. 동거 중이 아님) 분산분석 결과, 실험 조건($F(1, 215)=1.116, p=.292$)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F(1, 215)=.825, p=.365$)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15)=.790, p=.37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1와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1.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N=219)

실험 조건	노인과의 동거 여부	M	SD	n
자원 부족 점화	동거 중	3.20	.32	11
	동거 중이 아님	3.20	.66	98
	합계	3.19	.63	109
통제	동거 중	3.51	.56	8
	동거 중이 아님	3.22	.69	102
	합계	3.24	.68	110
합계	동거 중	3.33	.45	19
	동거 중이 아님	3.21	.67	200
	합계	3.22	.65	219

표 12.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N=219)

	자유도	F	p
실험 조건	1	1.116	.292
노인과의 동거 여부	1	.825	.365
실험 조건 X 노인과의 동거 여부	1	.790	.375
오차	215		

2-2. 실험 조건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물질주의의 차이

다음으로, 실험 조건과 성별, 종교 유무, 조부모와 동거 여부 및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라 물질주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 X 2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실험 조건과 성별에 따라 물질주의 경향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으며, 결과를 표 13과 표 14에 제시하였다.

2(실험 조건: 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 x 2(성별: 여성 vs. 남성) 분산분석 결과, 실험 조건($F(1, 215)=.532, p=.467$)과 성별($F(1, 215)=.264, p=.608$)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조건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15)=.920, p=.339$).

표 13. 실험 조건과 성별에 따른 물질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N=219)

실험 조건	성별	<i>M</i>	<i>SD</i>	<i>n</i>
자원 부족 점화	여성	3.74	.76	55
	남성	3.60	.71	54
	합계	3.67	.74	109
통제	여성	3.57	.79	58
	남성	3.62	.68	52
	합계	3.59	.73	110
합계	여성	3.66	.78	113
	남성	3.61	.69	106
	합계	3.63	.74	219

표 14. 실험 조건과 성별에 따른 물질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N=219)

	자유도	<i>F</i>	<i>p</i>
실험 조건	1	.532	.467
성별	1	.264	.608
실험 조건 X 성별	1	.920	.339
오차	215		

다음으로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에 따라 물질주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2(실험 조건: 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 x 2(종교: 있음 vs. 없음) 분산분석 결과, 실험 조건($F(1, 215)=.038, p=.846$)과 종교 유무($F(1, 215)=2.672, p=.104$)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 간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F(1, 215)=3.663, p=.057$).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5와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5.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에 따른 물질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N=219$)

실험 조건	종교유무	<i>M</i>	<i>SD</i>	<i>n</i>
자원 부족 점화	종교있음	3.39	.71	29
	종교없음	3.77	.72	80
	합계	3.67	.74	109
통제	종교있음	3.61	.82	35
	종교없음	3.58	.70	75
	합계	3.59	.73	110
합계	종교있음	3.51	.77	64
	종교없음	3.68	.71	155
	합계	3.63	.73	219

표 16. 실험 조건과 종교유무에 따른 물질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N=219$)

	자유도	<i>F</i>	<i>p</i>
실험 조건	1	.038	.846
종교 유무	1	2.672	.104
실험 조건 X 종교 유무	1	3.663	.057
오차	215		

다음으로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라 물질주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표 17과 표 18에 제시하였다. 2(실험 조건: 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 x 2(노인과의 동거 경험: 있음 vs. 없음) 분산분석 결과, 실험 조건($F(1, 215)=1.152, p=.284$)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F(1,$

215)=3.864, $p=.051$)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 간의 상호작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15)=1.945$, $p=.165$).

표 17.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물질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N=219$)

실험 조건	노인과의 동거경험	<i>M</i>	<i>SD</i>	<i>n</i>
자원 부족 점화	있음	3.70	.78	51
	없음	3.64	.70	58
	합계	3.67	.74	109
통제	있음	3.73	.74	65
	없음	3.40	.69	45
	합계	3.59	.73	110
합계	있음	3.72	.75	116
	없음	3.54	.71	103
	합계	3.63	.73	219

표 18.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물질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N=219$)

	자유도	<i>F</i>	<i>p</i>
실험 조건	1	1.152	.284
노인과의 동거경험	1	3.864	.051
실험 조건 X 노인과의 동거경험 오차	1 215	1.945	.165

마지막으로,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물질주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2(실험 조건: 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 x 2(노인과의 동거 여부: 동거 중 vs. 동거 중이 아님) 분산분석 결과, 실험 조건($F(1, 215)=1.499$, $p=.222$)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F(1, 215)=1.135$, $p=.288$)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 간의 상호작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15)=3.816$, $p=.052$). 이에 대한 결과를 표 19과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19.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물질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N=219)

실험 조건	노인과의	<i>M</i>	<i>SD</i>	<i>n</i>
	동거 여부			
자원 부족 점화	동거 중	3.53	.77	11
	동거 중이 아님	3.69	.74	98
	합계	3.67	.74	109
통제	동거 중	4.09	.56	8
	동거 중이 아님	3.56	.73	102
	합계	3.59	.73	110
합계	동거 중	3.76	.73	19
	동거 중이 아님	3.62	.74	200
	합계	3.63	.73	219

표 20. 실험 조건과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물질주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N=219)

	자유도	<i>F</i>	<i>p</i>
실험 조건	1	1.499	.222
노인과의 동거 여부	1	1.135	.288
실험 조건 X 노인과의 동거 여부	1	3.816	.052
오차	215		

3. 자원 부족 점화에 대한 조작 점검 결과

본 분석에 앞서, 연구참가자들이 할당된 조건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즉, 실험 집단인 자원 부족 점화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 부족이 적절히 점화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조건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는지 살펴보았고, 내용과 맞지 않는 응답을 한 사람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자원 부족에 대한 글쓰기 과제가 실제로 자원 부족을 점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글쓰기 과제 이후에 측정된 조작 점검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은 집단 변수로 투입하였고, 조작 점검 문항들에 대한 응답 평균은 종속 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보다 조작 점검 문항들에 더 높은 점수로 응답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 조건 간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N*=219)

변수	실험 조건	<i>n</i>	<i>M</i>	<i>SD</i>	<i>t</i>
조작 점검 문항	자원 부족 점화 조건	109	4.49	.77	2.50*
	통제 조건	110	4.23	.75	

p*< .05, *p*< .01, ****p*< .001.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자원 부족 조건과 통제 조건 간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217)=2.50$, $p<.05$. 구체적으로,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의 점수($M=4.49$, $SD=0.77$)가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M=4.23$, $SD=0.75$)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보다 현재 자신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글쓰기 과제를 통한 자원 부족의 점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4.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개인의 물질주의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러한 관계를 개인이 지닌 물질주의 수준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노인차별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노인접촉경험($r=-.58, p<.001$), 최종 학력($r=-.25, p<.01$)과 월 평균 가계 소득($r=-.22, p<.05$)을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더불어 2 X 2 분산분석에서 종교 유무와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라 노인차별주의 경향성에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두 변수를 더미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2단계에서는 실험 조건(1: 자원 부족 점화 조건, 0: 통제 조건)을 투입하여 각 항목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22에 제시하였다.

표 22.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 결과 (N=219)

단계	예측변수	노인차별주의				
		B	SE	β	R^2	ΔR^2
1 (통제)	노인접촉경험	-.345	.043	-.497***		
	종교 유무	.115	.084	.080		
	월 평균 가계 소득	-.023	.016	-.086	.281	.281
	최종 학력	-.028	.044	-.038		
	노인과의 동거경험	-.022	.080	-.017		
2	노인접촉경험	-.345	.043	-.497***		
	종교 유무	.118	.084	.083		
	월 평균 가계 소득	-.022	.016	-.082	.284	.003
	최종 학력	-.030	.044	-.041		
	노인과의 동거경험 조건	-.013 -.069	.081 .077	-.010 -.053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자원 부족의 점화는 노인차별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053$, $p=.370$. 1단계에서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통제변수들의 설명력은 28.1%였으나, 2단계에서 실험 조건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은 0.3% 증가하여 28.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 간의 관계를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조건(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을 예측변수로, 물질주의 수준을 조절변수로, 노인차별주의는 결과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예측변수는 실험 조건을 1, 통제 조건을 0으로 더미코딩하여 투입하였으며, 조절변수인 물질주의 수준과 결과변수인 노인차별주의는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 앞서 시행된 분석과 마찬가지로, 노인접촉경험, 최종 학력, 월 평균 가계 소득, 종교 유무 및 노인과의 동거 경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3과 같았다.

표 23.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물질주의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N=219)

	Coefficient(B)	SE	t	p
Intercept(Constant)	4.438	.350	12.571***	.000
조건 (X)	-.077	.077	-.993	.322
물질주의 (M)	.095	.075	1.259	.210
X * M	-.039	.106	-.369	.713
종교 유무	.108	.085	1.264	.208
노인접촉경험	-.353	.043	-8.118***	.000
노인과의 동거경험	.002	.082	.022	.983
월 평균 가계소득	-.020	.016	-1.244	.215
최종 학력	-.024	.044	-.533	.595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자원 부족 점화($B=-.077, p=.322$)와 물질주의($B=.095, p=.210$)는 노인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와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39, p=.71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5.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본 분석 이외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탐색적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질주의에 선행되는 변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을 예측하는 변수로도 알려져 있다(e.g., Jiang, Liu, & Jiang, 2020; Ku, 2015). 또한, 자원 부족 상황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물질주의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Roux et al., 2014). 이는 경제 자원의 결핍으로 인하여, 더욱 물질을 추구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Inglehart, 1990)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 물질주의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관련성을 지닌 선행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추가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결과에 대한 보다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에 비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줄 이론으로는 생애사 이론과 집단 갈등의 도구적 모델이 있다. 가장 먼저 생애사 이론(Life-histor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자원과 시간의 사용 전략으로는 빠른 전략과 느린 전략이 있으며, 이는 생애 초기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형성된다(Eliis, Figueredo, Brumbach, & Schlomer, 2009). 구체적으로, 생애 초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개인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인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거나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충동적인 경향을 보인다(Miller et al., 2009). 이러한 경향은 자원 부족과 같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Griskevicius et al., 2013). 두 번째로, 집단 갈등의 도구적 모델(Esses et al., 1998)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은 이미 적은 양의 자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높은 자원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자원 스트레스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생애사 이론과 집단 갈등의 도구적 모델에 따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자원 스트레스를 보일 것이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높은 자원 스트레스와 만족 추구의 실패는 자신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분석에서는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연구참가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을 위해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연구참가자들로부터 수집된 월 평균 가계 소득, 최종 학력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를 표준화하여 평균 낸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객관적 측정방식과 주관적 측정방식을 종합하여 활용된 방법으로, 각각의 방법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여 준다는 장점이 있어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관련 논의는 변상우, 2018 참조).

실험 조건(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을 예측변수로,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산출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종합 지표를 조절변수로, 노인차별주의는 결과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예측변수는 실험 조건을 1, 통제 조건을 0으로 더미코딩하여 투입하였으며, 결과변수와 조절변수인 노인차별주의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각각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노인접촉경험과 종교 유무 및 노인과의 동거 경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 부족 점화($B=-.075, p=.325$)는 노인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회경제적 지위($B=-.158, p=.034$)는 노인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와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B=.260, p=.019$. 이에 대한 결과를 표 24에 제시하였다.

표 24.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N=219$)

	Coefficient(B)	SE	t	p
Intercept(Constant)	4.239	.255	16.648***	.000
조건 (X)	-.075	.076	-.986	.325
사회경제적 지위 (M)	-.158	.074	-2.133*	.034
X * M	.260	.110	2.368*	.019
종교 유무	.113	.084	1.345	.180
노인접촉경험	-.355	.043	-8.291***	.000
노인과의 동거경험	-.014	.080	-.171	.864

* $p < .05$, ** $p < .01$, *** $p < .001$.

상호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값 선택방법 (pick-a-point approach)에 따라 평균을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1 표준편차 높은 집단과 1 표준편차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균 $\pm 1SD$ 수준에서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 관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에 따른 표와 그래프를 표 2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25를 살펴보면,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들에게서는 자원 부족 점화에 따라 노인차별주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theta_{X \rightarrow Y} | (M=.6936)=.105$, $t(212)=.976$, $p=.330$, $CI=-.11 \sim .32$.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낮은 개인들에게서 자원 부족 점화에 따라 노인차별주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theta_{X \rightarrow Y} | (M=-.6936)=-.255$, $t(212)=-2.38$, $p=.018$, $CI=-.47 \sim -.04$.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에만, 자원 부족이 점화되면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25.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건부 효과($N=219$)

사회경제적 지위	Effect	SE	t	p	95% CI	
					LL	UL
낮음 (-1SD)	-.26	.11	-2.38	.018	-.4661	-.0439
평균 (Mean)	.07	.08	.99	.325	-.2246	.0748
높음 (+1SD)	.11	.11	.98	.330	-.1074	.3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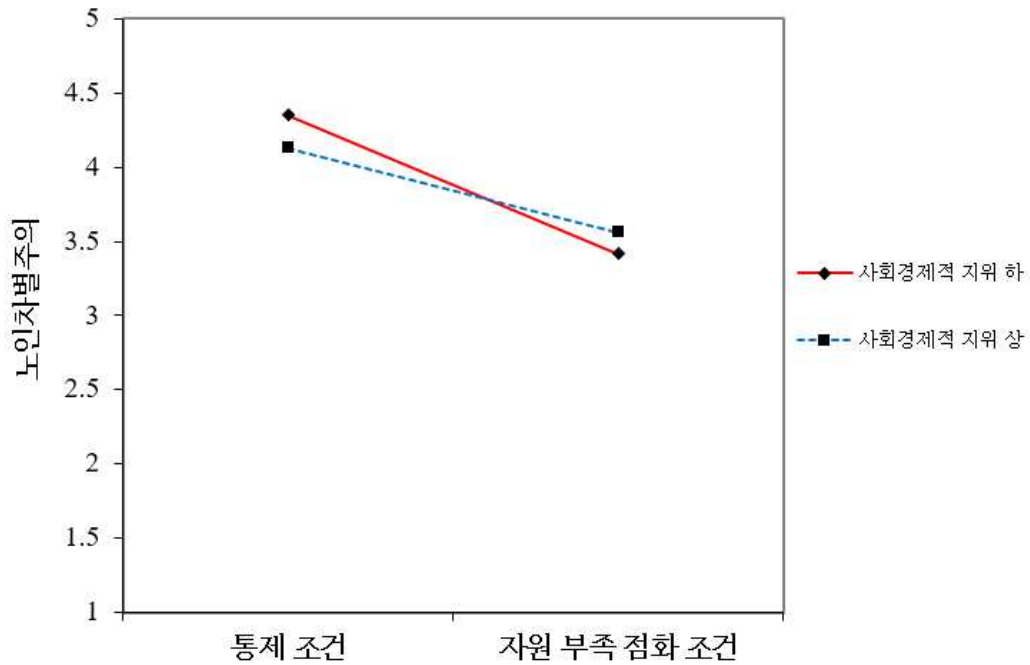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자원 부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작용 효과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의 전체 구간에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구간과 유의하지 않은 구간을 존슨-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 J-N)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존슨-네이만 방법은 조명등 분석법(floodlight analysis; Spiller, Fitzsimons, & Lynch Jr., 2013)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 예측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조절효과가 유의할 때, 예측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구간과 유의하지 않은 구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방법이다. 앞서 제시하였던 특정 값 선택방법(Aiken & West, 1991)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에 따라 임의로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기울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임의적이고, 제한된 조절변수의 조건부 값을 선택하여 분석한다는 제한점(Preacher, Rucker, & Hayes, 2007)을 지니

므로, 존슨-나이만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효과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값이 -0.3593 (상위 30.59%, 하위 69.41%) 이하인 구간에서만($n=152$)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와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7$, $SE=.09$, $t=-1.97$, $p=.05$.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M \leq -0.3593$ 구간에서 조건부 효과가 음수로 나왔으므로, 자원 부족을 점화 받은 연구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노인차별주의를 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6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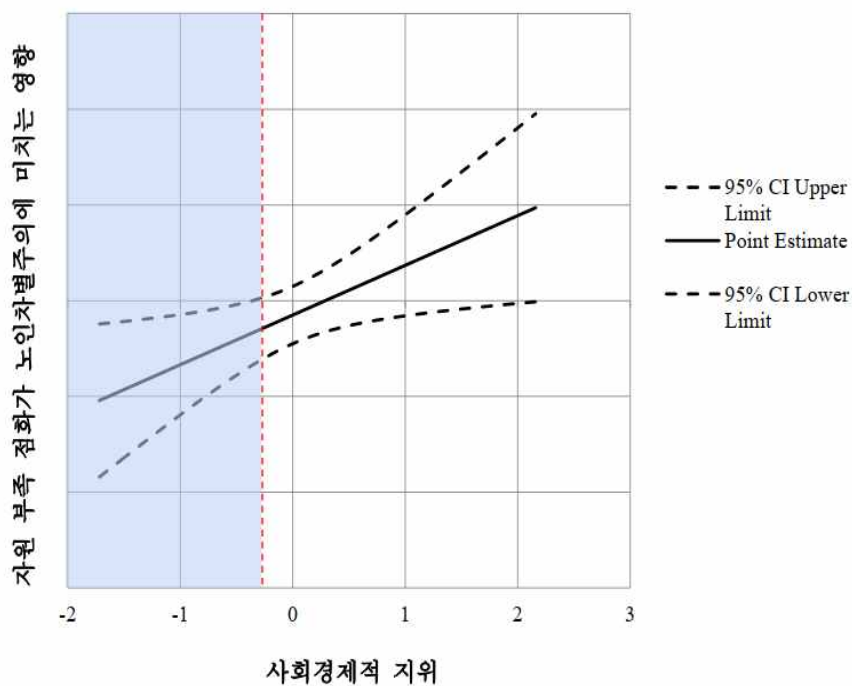


그림 3.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표 26. 존슨-나이만 방법을 통한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	Effect	se	t	p	95% CI	
					LL	UL
-1.7196	-0.5214	0.2028	-2.5714	0.0108	-0.9211	-0.1217
-1.5256	-0.471	0.1832	-2.5708	0.0108	-0.8322	-0.1099
-1.3317	-0.4207	0.1641	-2.5634	0.0111	-0.7442	-0.0972
-1.1377	-0.3703	0.1456	-2.5435	0.0117	-0.6573	-0.0833
-0.9438	-0.3199	0.1279	-2.5009	0.0131	-0.5721	-0.0678
-0.7498	-0.2696	0.1115	-2.4170	0.0165	-0.4894	-0.0497
-0.5559	-0.2192	0.0970	-2.2589	0.0249	-0.4105	-0.0279
-0.3619	-0.1689	0.0854	-1.9761	0.0494	-0.3373	-0.0004
-0.3593	-0.1682	0.0853	-1.9712	0.0500	-0.3363	0.0000
-0.1679	-0.1185	0.0780	-1.5185	0.1304	-0.2723	0.0353
0.0260	-0.0681	0.0760	-0.8960	0.3712	-0.2180	0.0817
0.2200	-0.0178	0.0799	-0.2224	0.8242	-0.1752	0.1397
0.4139	0.0326	0.0888	0.3673	0.7137	-0.1424	0.2076
0.6079	0.0830	0.1014	0.8182	0.4142	-0.1169	0.2829
0.8018	0.1333	0.1166	1.1436	0.2541	-0.0965	0.3632
0.9958	0.1837	0.1334	1.3765	0.1701	-0.0794	0.4468
1.1898	0.2341	0.1514	1.5458	0.1237	-0.0644	0.5325
1.3837	0.2844	0.1702	1.6716	0.0961	-0.0510	0.6198
1.5777	0.3348	0.1894	1.7674	0.0786	-0.0386	0.7082
1.7716	0.3852	0.2091	1.8421	0.0669	-0.0270	0.7973
1.9656	0.4355	0.2290	1.9016	0.0586	-0.0159	0.8870
2.1595	0.4859	0.2492	1.9499	0.0525	-0.0053	0.9771

VI. 논 의

1.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원 부족 점화를 예측변수로, 노인차별주의를 결과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노인차별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노인 접촉 경험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 종교 유무, 월 평균 가계 소득 및 최종 학력을 통제 변수로 1단계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원 부족의 점화는 노인차별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이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원 부족과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에 따라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 분석 외에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Hayes, 2017)의 model 1번을 사용

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원 부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자원 부족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자원 부족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이 점화되었을 때 노인차별주의를 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들을 각각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월 평균 가계 소득과 최종 학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달리,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참가자들이 지닌 물질주의 수준은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다. 이처럼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자원 부족의 점화를 받은 연구참가자들은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노인에 대하여 차별적인 태도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관련 조절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들을 아래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물질주의 변수가 지닌 특성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과 완

벽히 일치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물질주의는 구매 행동과 같은 소비자들의 심리 과정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변수이다(e.g., 채서영, 임성문, 2014; Goldsmith & Clark, 2012).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Richins & Dawson, 1992) 또한 소비자 가치로서의 물질주의를 측정하고자 개발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개관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자원 경쟁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심리 과정과 관련 없는 주제를 다루는 본 연구에 소비자 가치로서의 물질주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 가치로서의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제에 적용 가능한 물질주의 개념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물질주의와 함께 언급되었던 외재적 가치와 같이 소비자·광고 심리학이 아닌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자원 부족과 물질주의의 관계에 존재하는 중간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물질주의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추가분석에서 언급하였듯,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을 예측하는 변수이며(e.g., Jiang, Liu, & Jiang, 2020; Ku, 2015), 삶에서 경험한 물질주의를 형성한다(Inglehart, 1990). 더불어 자원 부족 상황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물질주의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Roux et al., 2014). 정리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짐작해보면, 자원 부족과 물질주의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투입하여 분석한다면, 유의한 결과가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더 확장된 모형, 즉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사회경제적 지위와 물질주의가 조절하는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던 상황의 영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로,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54일간 이어진 장마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 불황과 청년 실업 문제, 이에 따른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더 나아가, 기후 위기로 지구가 인간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이 일상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작성한 내용에서 경제 불황, 청년 실업, 기후 위기, 불안정한 미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연구참가자들이 그들이 겪을 소소한 일상을 기술하기보다, 코로나 19 및 기후 위기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나 경제 불황,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절된 인간관계 및 환경 파괴 등을 떠올린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자원 부족 점화 조작의 효과가 유의하기는 하였으나, 자료 수집 당시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원 부족 점화 조건뿐만 아니라 통제 조건에서도 연구참가자들이 자원 부족을 떠올렸을 때와 유사한 마음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하거나 통제 조건에서 측정하는 내용을 달리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선행 연구들(e.g., Fan et al., 2019; Hill et al., 2012)에서는 실험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자원 부족을 점화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자원의 풍요로움, 즉 번영(prosperity)을 점화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글쓰기 과제에 적용하여,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 미래에 자원이 풍부해진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기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글쓰기를 하여, 점화된 자원의 양에 따라 노인차별주의 경향성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연구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지시문에서 기인한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각 조건에서 요구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지시문에 몇 가지 예시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물, 식량, 시간, 돈과 같은 자원이 부족할 때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반면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운동하기, 친구 만나기, 식사하기, 휴식 취하기와 같은 일상 경험 중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들이 오히려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 부족이 점화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선행 연구에서 노인차별주의를 야기할 것으로 거론되었던 자원(일자리, 경제 상황, 정치적 영향력 등)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원을 본 연구의 참가자들에게 떠올리도록 하였다. 또한 조작 점검 결과 자원 부족의 점화가 유의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지만, 연구참가자들에게 노인차별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자원들이 점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자원 부족 점화 조건에 속한 많은 연구참가자들이 지구 멸망,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 등 당장은 와 닿지 않는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기술하였다. 지구가 멸망하거나 전쟁과 같은 사건들은 당장의 일자리 부족이나 경제 불황같은 사건들보다 일어날 확률이 낮다. 더불어 이러한 사건들은 선행 연구(North & Fiske, 2016; Ospina et al., 2019)에서 다루었던 자원들과도 거리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지시문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경제, 가치관, 정치적 영향력 등 노인세대가 지닌 자

원에 대하여 느끼는 위협감을 측정하는 노인세대에 대한 위협 척도(김지연 등, 2014)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참가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김지연 등(201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Fraboni 등(1990)의 노인차별주의 척도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측정도구이다. 유지혜와 설경옥(2018)이 번안, 타당화한 물질주의 척도(Richins & Dawson, 1992) 또한 물질주의를 주요 변수로 다루는 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두 척도는 다소 부정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경우, ‘노인들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 ‘노인들에게 사실상 지역 스포츠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와 같은 다소 노골적인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연구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하여 연구참가자들이 제시된 문항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IAT)와 같이 암묵적인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참가자들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연구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조사회사에 데이터 수집을 의뢰하였다. 조사회사에서는 홈페이지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은 책정된 금액만큼 적립되며, 일정 금액이 쌓이면 이를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꽤 넓은 최대한 많은 설문에 참여해야 의미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 구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연구참가자들이 보다 많은 연구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불성실 응답들을 모두 삭제하여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참가자들의 응답

을 모으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넷 조사 연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어 연구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 사이트에 들어온 응답자만을 참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채서일, 김주영, 201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다양한 장소에서 연구를 홍보하여 더 많은 연구참여자를 모집해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연구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가능한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구 링크를 배포한다면 보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연구참가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제시하여 참여를 독려한다면, 더욱 많은 연구참가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추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물질주의의 조절효과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추가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조절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연구참가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달라졌다. 그에 반해, 연구참가자들의 물질주의 수준에 따라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물질주의와 달리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조절하였던 추가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니는 노인에 대한 태도는 그들이 지닌 실질적인 자원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Sherif et al., 1961)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청년세대가 지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개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나 연금과 같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같은 가치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황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이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제시한 지시문으로 인하여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가 달리 나타났을 수 있다. 자원 부족 점화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 예시로 제시하였던 물, 식량, 시간, 돈과 같은 자원은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필수 자원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필수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으므로 자원 부족 점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수 있다. 반면,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사치품과 같이 필수품은 아니나 호화로운 삶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필수 자원에는 비교적 관심을 덜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시된 예시들 중 돈은 물질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원이라는 하나, 나머지 예시들이 적절치 않아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연구참가자들의 노인차별주의 경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돈과 같이 노인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는 동시에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만한 자원을 예시로 제시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참가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추가분석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노인세대를

외집단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평소 자원 부족을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원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집단 갈등의 도구적 모델(Esses et al., 1998)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자원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다. 자원 스트레스는 공공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이 노인세대를 외집단으로 인식하였다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야 한다. 그러나 추가분석 결과, 자원 부족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노인차별주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의 노인집단은 국가의 혜택을 누리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가난한 이미지(김미혜, 2003; 김완태, 조문기, 2015; 장혜순, 조인숙, 2003)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은 노인집단을 외집단이 아닌 내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을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으로 제시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가난한 노인보다 부유한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약자의 태도에 더 공감하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고통 받는 타인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느끼는 반면(Stellar, Manzo, Kraus, & Keltner, 2012),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공감을 덜 한다(Cote, Piff, & Willer., 201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론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원 부족을 떠올리지 않았을 때보다 자원 부족을 떠올렸을 때,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받을 피해를 더 생각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부족이 점화된 상태에서 노인들에 대한 동정심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게 되어 노인차별주의적 태도를 덜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동정심의 매개효과,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자원 부족을 떠올렸을 때 더 크게 동정심을 느껴 노인차별주의적 태도를 적게 보이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비록 연구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지는 못하였으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인 노인차별주의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유한한 자원으로 인하여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여러 이론들을 토대로, 노인차별주의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개인 내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장점을 지닌다. 노인혐오가 만연해 있는 현재,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인차별주의를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질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학문적 논의에 대한 발판이 되길 기대해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주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노인 접촉 경험의 효과를 재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접촉 경험과 노인차별주의 간에 부적인 상관($r_{\text{실험 조건}} = -.58$, $r_{\text{통제 조건}} = -.46$, $p < .001$)이 나타났으며, 연구참가

자들의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라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과의 긍정적인 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노인들과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노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덜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간 접촉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접촉가설(Contact theory; Allport, 1954)과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노인차별주의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김민희, 2013; Allan & Johnson, 2008; Boswell, 2012; Lytle & Levy, 2019; Stewart et al., 2005; Tam et al., 2006; Van Dussen & Weaver, 2009)과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재확인한 결과를, 노인과의 긍정적인 접촉 경험을 늘림으로써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를 감소시키는 개입 방안을 고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원구, 동작구, 광진구 등 서울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룸 셰어링(하우스 셰어링)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력적 주거 복지 모델이다(한겨레, 2015). 노인들은 대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임대하여 주고, 대학생들은 소정의 임대료와 말동무 되기, 전자기기 작동법 안내하기 등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청년세대가 직면한 주거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그들이 지닌 노인들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노인들의 긍정적인 모습도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간접 접촉 경험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편견의 대상과 면대면으로 마주하는 직접 접촉 외에,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 또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Herek & Capitanio, 1997).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를 통한 부정적인 간접 접촉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부정적인 노인의 모습을 자주 그리고 많이 접할수록, 노

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였다(안순태, 강한나, 201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건대, 미디어에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노인들의 모습을 빈번하게 제시하여 노인차별주의적 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참가자의 연령을 20, 30대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가 노인세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0, 30대 연구참가자들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윤경, 2007). 예컨대, 비 노인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다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한다(이금룡, 2004).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20대 참가자들에 비하여 30대 참가자들이 노인차별주의 경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중장년층 참가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에 연령차 및 세대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참가자 개개인이 지닌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세세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차별주의 척도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가지고 있던 노인에 대한 이미지나 접촉 경험에 따라 노인의 성별을 달리 떠올렸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친다(한정란, 2000).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참가자들이 떠올린 노인 이미지에 따라 노인차별주의의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지시문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해보는 수 있겠다. 이를 통하여, 지시문에 여러 노인들의 정보를 제시함에 따라 연구참가

자들의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횡단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자원 부족을 실험적으로 점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 한 차례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참가자들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경제 위기나 취업난이 심각했던 해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그 이후 응답을 비교하여,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실제 현상으로써의 자원 부족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적이고 강력한 설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고령 사회로 가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없다면, 노인들이 적응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노화는 누군가의 잘못이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비록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으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노인차별주의를 발생시키는 거시적인 원인과 개인 내적인 특성을 탐색하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재선 (2018). 청소년기 물질주의와 대인관계의 질, 성인기 행복의 장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5, 169-189.
- 구재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 63-83.
- 김미혜 (2003).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한국노년학*, 23, 13-30.
- 김민희 (2013). 노인접촉,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죽음불안이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 435-456.
- 김완태, 조문기 (2015). 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노인태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일어일문학*, 65, 287-302.
- 김욱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 (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97-118.
- 김욱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 21-35.
- 김정희, 임병우 (2017).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과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효 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595-611.
- 김주현 (2009). 연령주의 (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82, 361-391.
- 김주현. (2015). 한국 고령자의 연령차별 경험과 노년기 인식 질적 연구. *한국인구학*, 38, 69-104.

- 김주현, 오혜인, 주경희 (2020). 노인차별 경험과 자기연령주의 (self-ageism). *한국노년학*, 40, 659-689.
- 김주현, 주경희, 오혜인 (2013). 경제활동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60, 287-321.
-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89-106.
- 김지연, 민경환, 김민희 (2014).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 45-72.
- 박재홍, 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 46, 69-95.
- 박진우 (2018.12.42). 국민연금·지하철 무임승차...도처에 '화약고'.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22484961> 에서 자료연음.
- 박채리, 정순돌, 안순태 (2018). 노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집단별 비교. *노인복지연구*, 73, 385-416.
- 박현식 (2008). 공공부조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41, 7-25.
- 변상우 (2018). 사회계층에 대한 재조명: 심리학에서 개념화 및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 101-130.
- 서재교 (2015.11.22.). '룸세어링'으로 대도시 주거 문제 푼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8578.html#csidx26697e0253515f4bb09a5cd1aa7cae0 에서 자료 연음.
- 서지명 (2015.10.03.). "노인, 구직할 때 연령차별 가장 많이 느껴".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5100217333343727> 에서 자료 연음.

- 성경룡 (2015). 세대균열과 세대연대: 정치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차별적 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 5-29.
- 신광영 (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 97-127.
- 신흥임 (2013). 돈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가? 한국 및 독일 대학생 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 1-16.
- 안순태, 강한나, 정순돌 (2018).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낙인 인식. 한국노년학, 38, 203-223.
- 양유진, 오한나 (2018). 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노인 특성 분석 연구. 어린이 미디어연구, 17, 1-25.
- 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김영, 김남희 (2018). 노인의 차별경험인식과 자살 사고간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73, 215-239.
- 오현정, 신경아 (2019). 한국 언론은 '노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2010 년 이후의 노인 관련 언론 보도 특성 분석. 홍보학 연구, 23 40-68.
- 왕명자 (2010).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1, 101-109.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 385-410.
- 이금룡 (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모색. 노인복지연구, 26, 143-164.
- 이민아, 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 89-114.
- 이상립 (2009). 한국의 노년과 연령주의: 차별과 배제의 중층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59-777.

- 이윤경 (2007).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30, 1-22.
- 이재경 (2018). 세대갈등의 양상, 원인, 대안 모색: 한국의 렌트 (추구) 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8-48.
- 이지연, 한경혜 (2017).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노화불안이 노인과의 시공간 공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과의 접촉 및 교류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 1-30.
- 이현미, 김준영 (2019.1.1). 청년 7.8% "뜰딱·연금충들"...노인 16.6% "들어본 적 있다" ['세대 갈등'에 명드는 한국 - 신년특집].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81231003302> 에서 자료얻음.
- 장세진, 강문선, 나혜진, 남연경, 박민경, 김수영 (2016).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상관관계 연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84-384.
-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 5-24.
- 정혜숙, 이동귀 (2018). 고등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성향의 조절효과. 재활심리연구, 25, 759-773.
- 장혜순, 조인숙 (2003). 한국의 전래동화 속에 나타난 '노인'의 특성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4, 79-98.
- 조성희, 김경미 (2016). 노년기의 차별 및 배제 경험에 대한 인식정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71, 359-387.
- 진철숙 (2015).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기관상담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193-204.
- 채서영, 임성문 (2014).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의 관계: 물질주의와 의사결정 유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5,

123-144.

- 채서일, 김주영 (2016).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앤엠북스.
- 천희란, 김일호 (2013). 노인차별 (ageism) 의 사회경제적 관련요인과 건강 영향. *한국노년학*, 33, 601-615.
- 천희란, 김일호 (2017). 노인차별과 정신건강: 감정반응의 매개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 2741-2754.
- 통계청 (2019.09.27). 2019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7701 에서 자료얻음.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 115-127.
- 홍세희 (2020).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76: Program 2 매개, 조절,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서울: 박영사.
- 황민영, 정순돌, 김주현 (2018).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 우울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 65-103.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 586-592.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Allan, L. J., & Johnson, J. A. (2008).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 1-14.
- Allport, G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 Ashikali, E. M., & Dittmar, H. (2012). The effect of priming materialism on women's responses to thin ideal media.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 514-533.
- Avolio, B. J., & Barrett, G. V. (1987). Effects of age stereotyping in a simulated interview. *Psychology and aging, 2*, 56.
- Baker, A. M., Moschis, G. P., Benmoyal-Bouzaglo, S., & Pizzutti dos Santos, C. (2013). How family resources affect materialism and compulsive buying: A cross-country life course perspective. *Cross-Cultural Research, 47*, 335-362.
- Barrita, A., & Keltner, D. (2017). The Effects of Perceived Economic Inequality on Social Decision-Making. 1-47.
- Batson, C. D., & Ahmad, N. Y. (2009). Using empathy to improve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3*, 141-177.
- Bauer, M. A., Wilkie, J. E., Kim, J. K., & Bodenhausen, G. V. (2012). Cuing consumerism: Situational materialism undermines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23*, 517-523.
- Binstock R. H. (2005). Old-age policies, politics, and ageism. *Generations, 29*, 73 - 78.
- Bless, H., Mackie, D. M., & Schwarz, N. (1992). Mood effects on attitude judgments: Independent effects of mood before and after message elabo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85.
- Boswell, S. S. (2012). "Old people are cranky": helping professional

- trainees' knowledge, attitudes, aging anxiety, and interest in working with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38*, 465-472.
- Brannon, L. A., & Brock, T. C. (2001). Limiting time for responding enhances behavior corresponding to the merits of compliance appeals: Refutations of heuristic-cue theory in service and consumer setting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0*, 135-146.
- Briers, B., & Laporte, S. (2013). A wallet full of calories: The effect of financial dissatisfaction on the desire for food energ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0*, 767-781.
- Brock, T. C., & Brannon, L. A. (1992). Liberalization of commodity theory.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135-144.
- Butler, R. 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 243 - 246.
- Butler, R. N. (1980). Ageism: A foreword. *Journal of Social Issues*, *36*, 8-11.
- Butler, R. N. (1987). *Ageism.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 Butler, R. N. (1995). *Ageism*. In G. Maddox (Ed.),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 Cannon, C., Goldsmith, K., & Roux, C. (2019). A self regulatory model of resource scarcity.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9*, 104-127.
- Chang, L. W., Krosch, A. R., & Cikara, M. (2016). Effects of intergroup threat on mind, brain, and behavior.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1, 69-73.

- Côté, S., Piff, P. K., & Willer, R. (2013). For whom do the ends justify the means? Social class and utilitarian mor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490.
- Davis, J. A. (1959). A formal interpret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Sociometry, 22*, 280-296.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2010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3.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 879-924.
- Durante, K. M., Griskevicius, V., Redden, J. P., & Edward White, A. (2015). Spending on daughters versus sons in economic reces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 435-457.
- Duriez, B., Meeus, J., & Vansteenkiste, M. (2012). Why are some people more susceptible to ingroup threat than others? The importance of a relative extrinsic to intrinsic value orient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 164-172.
- Duriez, B., Vansteenkiste, M., Soenens, B., & De Witte, H. (2007). The social costs of extrinsic relative to intrinsic goal pursuits: Their relation with social dominance and racial and ethnic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75*, 757-782.
- Dychtwald, K. (1999). *Age power: How the 21st century will be ruled*

by the new old. New York: Tarcher/Putnam.

- Ellis, B. J., Figueredo, A. J., Brumbach, B. H., & Schlomer, G. L. (2009). Fundamental dimensions of environmental risk: The impact of harsh versus unpredictable environments o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life history strategies. *Human Nature, 20*, 204 - 268.
- Esse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 699-724.
- Fan, L., Li, X., & Jiang, Y. (2019). Room for opportunity: Resource scarcity increases attractiveness of range marketing offer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6*, 82-98.
- Fernbach, P. M., Kan, C., & Lynch Jr, J. G. (2015). Squeezed: Coping with constraint through efficiency and prioritiz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 1204-1227.
- Fischhoff, B., Gonzalez, R. M., Small, D. A., & Lerner, J. S. (2003). Judged terror risk and proximity to the World Trade Center. In *The risks of terrorism* (pp. 39-53). Springer, Boston, MA.
- Fraboni, M., Saltstone, R., & Hughes, S. (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 (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9*, 56-66.
- Goldsmith, R. E., & Clark, R. A. (2012). Materialism, status consumption, and consumer independen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 43-60.

- Goldsmith, K., Roux, C., & Ma, J. (2018). When seeking the best brings out the worst in consumer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ximizing mindset and immo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8, 293-309.
- Greenberg, J., Schimel, J., Mertens, A. (2004). *Ageism: Denying the face of the future*. In: Nelson, TD., editor.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4. p. 27-48.
- Griskevicius, V., Ackerman, J. A., Cantu, S. M., Delton, A. W., Robertson, T. E., Simpson, J. A., Tybur, J. M. (2013). When the economy falters, do people spend or save? Responses to resource scarcity depend on childhood environment. *Psychological Science*, 24, 197 - 205.
- Hamilton, R., Thompson, D., Bone, S., Chaplin, L. N., Griskevicius, V., Goldsmith, K., ... & Piff, P. (2019). The effects of scarcity on consumer decision journey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7, 532-550.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ayes, A. F., & Rockwood, N. J. (2017). Regression-based statistical mediation and moderation analysis in clinical research: Observations, recommendations, and implement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98, 39-57.

- Herek, G. M., & Capitano, J. P. (1997). AIDS stigma and contact with persons with AIDS: Effects of direct and vicarious conta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 1-36.
- Hill, S. E., Rodeheffer, C. D., Griskevicius, V., Durante, K., & White, A. E. (2012). Boosting beauty in an economic decline: mating, spending, and the lipstick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 275.
- Ho, A. K., Sidanius, J., Cuddy, A. J., & Banaji, M. R. (2013). Status boundary enforcement and the categorization of black - white biraci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 940-943.
- Hutchison, P., Fox, E., Laas, A. M., Matharu, J., & Urzi, S. (2010). Anxiety, outcome expectancies, and young people's willingness to engage in contact with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36*, 1008-1021.
- Inglehart, R.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1017*.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man, J. J., Peter, A. C., & Raghurir, P. (1997). Framing the deal: The role of restrictions in accentuating deal val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4*, 68-79.
- Ishii, K., & Tado'oka, Y. (2015). The influence of pathogen threat on ageism in Japan: The role of living with older adults. *Shinrigaku*

- kenkyu: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86, 240–248.
- Jiang, W., Liu, H., & Jiang, J. (2020). The Development of Materialism in Emerging Adulthood: Stability, Change, and Antece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0146167220925234.
- Kasser, T. (2002).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London: MIT Press.
- Kasser, T.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489–514.
- Kingson, E. R., Hirshorn, B.A., Cornman, J.M. (1986). *Ties that bind: The interdependence of generations in an aging society*. Washington, D.C: Seven Locks Press.
- Krosch, A. R., & Amodio, D. M. (2014). Economic scarcity alters the perception of ra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 9079–9084.
- Krosch, A. R., Tyler, T. R., & Amodio, D. M. (2017). Race and recession: Effects of economic scarcity on ra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 892–909.
- Ku, L. (2015). Development of materialism in adolescence: The longitudinal role of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youth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4, 231–247.
- Lau, B. W., & Pritchard, C. (2001). Suicide of older people in Asian societi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0, 196–203.
- Lee, A. J., & Zietsch, B. P. (2011). Experimental evidence that women's mate preferences are directly influenced by cues of pathogen prevalence and resource scarcity. *Biology Letters*, 7, 892–895.

- Lench, H. C., Levine, L. J., Perez, K., Carpenter, Z. K., Carlson, S. J., Bench, S. W., & Wan, Y. (2019). When and why people misestimate future feelings: Identifying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ffective foreca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6*, 724 - 742.
- Lester, P. M., & Ross, S. D. (2003). Images that injure: An introduction. *Images that injure: Pictorial stereotypes in the media*, *2*, 1-4.
- Liden, R. C., Stilwell, D., & Ferris, G. R. (1996). The effects of supervisor and subordinate age on objective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ratings. *Human Relations*, *49*, 327-347.
- Luo, B., Zhou, K., Jin, E. J., Newman, A., & Liang, J. (2013). Ageism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US and Chin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8*, 49-63.
- Lytle, A., & Levy, S. R. (2019). Reducing ageism: Education about aging and extended contact with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59*, 580-588.
- Mead, N. L., Baumeister, R. F., Stillman, T. F., Rawn, C. D., & Vohs, K. D. (2011). Social exclusion causes people to spend and consume strategically in the service of affili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 902-919.
- Mehta, R., & Zhu, M. (2016). Creating when you have less: The impact of resource scarcity on product use creativ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 767-782.
- Miller, G. E., Chena, E., Fok, A. K., Walker, H., Lima, A., Nicholls, E. F., . . . Kobor, M. S. (2009). Low early-life social class leaves a

- biological residue manifested by decreased glucocorticoid and increased proinflammatory signal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6*, 14716 - 14721
- Miller, P. N., Miller, D. W., McKibbin, E. M., & Pettys, G. L. (1999). Stereotypes of the elderly in magazine advertisements 1956 - 1996.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9*, 319-337.
- Minkler, M. (1991). Generational equity and the new victim blaming. *Critical perspectives in aging*, 67-79.
- Mitchell, T. R., Thompson, L., Peterson, E., & Cronk, R. (1997). Temporal adjustments in the evaluation of events: The “rosy view”.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421-448.
- Mullainathan, S., & Shafir, E. (2013). *Scarcity: Why having too little means so much*. Macmillan.
- Nelson, T. D. (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pp. 98-102). Boston: Allyn and Bacon.
- Nelson TD.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 207 - 221.
- Nelson, L. D., & Morrison, E. L. (2005). The symptoms of resource scarcity: Judgments of food and finances influence preferences for potential partners. *Psychological science*, *16*, 167-173.
- Netchaeva, E., & Rees, M. (2016). Strategically stunning: The professional motivations behind the lipstick effect. *Psychological Science*, *27*, 1157-1168.
- North, M. S., & Fiske, S. T. (2012).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138*, 982.
- North, M. S., & Fiske, S. T. (2015). Modern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in the aging world: A cross-cultural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1*, 993.
- North, M. S., & Fiske, S. T. (2016). Resource scarcity and prescriptive attitudes generate subtle, intergenerational older worker exclusion. *Journal of Social Issues*, *72*, 122-145.
- Osgood, N. J. (2000). "Ageism and elderly suicide: The intimate connection". In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Theories concepts and applications*, Edited by: Tomer, A. 157 - 174. Philadelphia, PA: Routledge.
- Ospina, J. H. (2015). Resource competition and ageism: A study of the influence of employment scarcity on the endorsement of ageist attitudes. Doctoral dissertation, Colorado State University Libraries.
- Ospina, J. H., Cleveland, J. N., & Gibbons, A. M. (2019).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Scarcity and Perceived Threat With Ageist and Sexist Attitudes. *Work, Aging and Retirement*, *5*, 215-235.
- Palmore, E.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 572-575.
- Palmore, E. (2003). Ageism comes of age. *The Gerontologist*, *43*, 418 - 420.
- Pitesa, M., & Thau, S. (2018). Resource scarcity, effort, and performance

- in physically demanding jobs: An evolutionary explan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3*, 237.
- Popham LE, Kennison SM, Bradley KI. (2011). Ageism, sensation-seeking, and risk-taking behavior in young adults.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30*, 184 - 193.
- Pratto, F., & John, O. P. (1991). Automatic vigilance: the attention-grabbing power of negative soci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80.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odeheffer, C. D., Hill, S. E., & Lord, C. G. (2012). Does this recession make me look black? The effect of resource scarcity on the categorization of biracial faces. *Psychological Science*, *23*, 1476-1478.
- Roets, A., Van Hiel, A., & Cornelis, I. (2006). Does materialism predict racism? Materialism as a distinctive social attitude and a predictor of prejudi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Published for the European Associ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y*, *20*, 155-168.
- Roux, C., Goldsmith, K., & Bonezzi, A. (2015). On the psychology of

- scarcity: When reminders of resource scarcity promote selfish (and generous)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 615–631.
- Ryan, R. M., Sheldon, K. M., Kasser, T., & Deci, E. L. (1996). All goals are not created equal: An organismic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oals and their regulation. In P. M. Gollwitzer &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p. 7 - 26). The Guilford Press.
- Salerno, A., & Sevilla, J. (2019). Scarce foods are perceived as having more calorie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9*, 472–482.
- Shah, A. K., Mullainathan, S., & Shafir, E. (2012). Some consequences of having too little. *Science*, *338*, 682–685.
- Sharma, E., & Alter, A. L. (2012). Financial deprivation prompts consumers to seek scarce good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 545–560.
- Sheldon, K. M., & Kasser, T. (2008). Psychological threat and extrinsic goal striving. *Motivation and Emotion*, *32*, 37–45.
- Sheldon, K. M., & McGregor, H. A. (2000). Extrinsic value orientation a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Journal of personality*, *68*, 383–411.
- Sheldon, K. M., Sheldon, M. S., & Osbaldiston, R. (2000). Prosocial values and group assortment. *Human nature*, *11*, 387–404.
- Sherif, M.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London: Routledge.
- Sherif, M., Harvey, O. J., White, J., Hood, W., & Sherif, C. (1961).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 robbers cave experiment.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Institute of intergroup relations.

-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91).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ocial behavior: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4, pp. 93-159). Academic Press.
- Spiller, S. A., Fitzsimons, G. J., Lynch Jr, J. G., & McClelland, G. H. (2013). Spotlights, floodlights, and the magic number zero: Simple effects tests in moderated regres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0*, 277-288.
- Stellar, J. E., Manzo, V. M., Kraus, M. W., & Keltner, D. (2012). Class and compassion: socioeconomic factors predict responses to suffering. *Emotion, 12*, 449.
- Stephan, W., & Renfro, C. (2004). The role of threat in intergroup relations. Mackie, D. & Smith, E. (Eds.),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pp. 191-207). NY: Psychology Press.
- Stephan, W., Ybarra, O., & Morrison, K. (2009). Intergroup threat theory. Nelson, T. (Ed.),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pp.43-59). NY: Psychology Press.
- Stewart, J. J., Giles, L., Paterson, J. E., & Butler, S. J. (2005).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New Zealand students entering health professional degrees. *Physical & Occupational Therapy in Geriatrics, 23*, 25-36.

- Tam, T., Hewstone, M., Harwood, J., Voci, A., & Kenworthy, J. (2006). Intergroup contact and grandparent - grandchild communication: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on implicit and explicit biases against older people.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 413-429.
- Van Dussen, D. J., & Weaver, R. R. (2009).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and behaviors related to the aged and to aging processes. *Educational Gerontology*, *35*, 342-357.
- Vauclair, C. M., Hanke, K., Huang, L. L., & Abrams, D. (2017). Are Asian cultures really less ageist than Western ones? It depends on the questions asked.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2*, 136-144.
- Wang, L., You, Y., & Yang, C. M. (2020). Restrained by resources: The effect of scarcity cues and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SES) on consumer preference for feasi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15.
- Watkins, C. D., Jones, B. C., Little, A. C., DeBruine, L. M., & Feinberg, D. R. (2012). Cues to the sex ratio of the local population influence women's preferences for facial symmetry. *Animal Behaviour*, *83*, 545-553.
- White, A. E., Kenrick, D. T., Neel, R., & Neuberg, S. L. (2013). From the bedroom to the budget deficit: Mate competition changes men's attitudes toward economic redis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 924.
- Wirtz, D., Kruger, J., Scollon, C. N., & Diener, E. (2003). What to do on

spring break? The role of predicted, on-line, and remembered experience in future choice. *Psychological Science*, 14, 520-524.

ABSTRACT

The Effect of Resource Scarcity on Ageism in the Young Gener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Materialism Level

Inyeo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socio-structural factors that cause ageism, investigating whether the influence of the resource scarcity of young generations on ageism depends on individual levels of materialism. Specifically, we predicted that higher levels of materialism would lead resource scarcity to have a greater impact on ageism. To test this hypothesis, we conducted an online study of 219 adults in their 20s and 30s. Specifically, participants completed writing tasks divided into the resource scarcity priming condition and the control condition, and later responded to items regarding ageism and materialism. We found that although the writing task effectively achieved resource scarcity priming,

resource scarcity priming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ageism, and individual levels of materialism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 scarcity and ageism. However, after conducting further analysis, we confirmed that socioeconomic status controls the impact of resource scarcity on ageism. In other words, our analysis showed that resource scarcity priming has less of an impact on ageism among individuals of low socioeconomic status. This finding aligns with the results of a prior study in which people of low socioeconomic status were shown to be more sympathetic to so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suffering deleterious situations such as resource scarcity. This study examined ageism—a subject that has received meager attention relative to its importance—and, significantly, it considered a new moderating variable through further analysis. We conclude this paper by discussing our findings, the study’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ageism, resource scarcity, materialism, socioeconomic status(SES), moderation effect*

부 록

부록 1. 연구 질문지

부록 1-1. 점화 자극

부록 1-2. 조작 점검 문항

부록 1-3. 노인차별주의 척도

부록 1-4. 물질주의 척도

부록 1-5. 노인 접촉 경험 문항

부록 1-6.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

부록1. 연구질문지

부록 1-1. 점화 자극

<실험 조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 식량, 시간, 돈 등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자원이 고갈된다면, 귀하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자원이 부족할 때 귀하께서 겪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을 3개 혹은 4개 정도 떠올리신 후, 그 중 두 가지를 골라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은지 각각 자세히 묘사해주십시오.

<통제 조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동, 친구 만나기, 식사하기, 휴식 취하기 등의 일상생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보았을 때, 귀하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귀하께서 겪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을 3개 혹은 4개 정도 떠올리신 후, 그 중 두 가지를 골라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은지 각각 자세히 묘사해주십시오.

부록 1-2. 조작 점검 문항

아래에서는 귀하께서 이전 페이지에 글을 쓰시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문장을 읽고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 혀 동 의 하 지 않 는 다	동 의 하 지 않 는 다	약 간 동 의 하 지 않 는 다	약 간 동 의 한 다	동 의 한 다	전 적 으 로 동 의 한 다
1 나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2 나는 자원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						
3 나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4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부록 1-3. 노인차별주의 척도

아래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귀하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별도로 정해진 정답이나 오답은 없사오니, 각 문장을 읽고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 귀하의 평소 생각 및 느낌과 일치하는 숫자를 골라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대부분의 노인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관심이 없는 대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2 나는 종종 노인들과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3 나는 노인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싫다.						
4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돈이나 가진 것을 배풀지 않고 모으려고만 한다.						
5 노인들 주변에 있을 때,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감정일 것이다.						
6 노인들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						

7 대부분의 노인들은 과거 속에 갇혀산다.						
8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불평이 많다.						
9 대부분의 노인들은 흥미롭고 개성이 있다.						
10 나는 개인적으로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11 대부분의 노인들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12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주어서는 안된다.						
13 노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14 노인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들으면 슬프다.						
15 나는 노인들의 모임에 초대받아도 가고 싶지 않다.						
16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17 노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매우 즐겁다.						
18 노인들에게 사실상 지역 스포츠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						

- 정서적 회피 : 2, 3, 9*, 10, 13, 15, 17*

- 차별 : 6, 12, 14*, 16*, 18

- 고정관념 : 1, 4, 5, 7, 8, 11

(*은 역문항)

부록 1-4. 물질주의 척도

아래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별도로 정해진 정답이나 오답은 없사오니, 각 문장을 읽고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 귀하의 평소 생각 및 느낌과 일치하는 숫자를 골라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이다.						
2 더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3 나는 대개 내가 필요한 물건만 산다.						
4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소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5 나는 타인의 물질적 소유물에 별 관심이 없						

다.						
6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7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8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좋다.						
9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매우 속상하다.						
10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11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 비해 물질적 소유물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						
12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13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14 나는 럭셔리한(호화로운) 삶이 좋다.						
15 나는 고가의 집,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부럽다.						

- 성공판단 : 1, 5*, 7, 8, 1
- 소유중심 : 3*, 4*, 10*, 11*, 13, 14
- 행복추구 : 2*, 6, 9, 12

(*은 역문항)

부록 1-5. 노인 접촉 경험 문항

아래에서는 귀하께서 노인과 교류하신 경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들에 별도로 정해진 정답이나 오답은 없사오니, 각 문장을 읽고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 귀하의 평소 생각 및 느낌과 일치하는 숫자를 골라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과거에 나는 노인들과 교류한 적이 거의 없다.						
2 과거에 나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노인들과 교류했었다.						
3 내가 자랐던 동네에는 노인들이 많았다.						
4 나는 노인들과 좋았던 경험이 많이 있다.						
5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노인들과 친구처럼 지내왔다.						
6 과거에 노인들과 함께 했던 기억은 나에게 즐						

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 접촉 빈도 : 1*, 2, 3

- 접촉의 질 : 4, 5, 6

(*은 역문항)

부록 1-6.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정보 혹은 상황과 일치하는 숫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민감한 개인정보는 절대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2. 귀하의 연령을 만 나이로 적어 주십시오(ex. 만 26세). 만 ()세

3. 귀하께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① 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② 전문가
-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 ④ 사무직원
- ⑤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 ⑥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 ⑧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근로자
- ⑨ 단순노무직
- ⑩ 무직, 학생, 주부
- ⑪ 기타 : ()

**5. 귀하의 월 평균 가계 총 소득(가족 구성원 모두의 총 소득)은 어떻게 되
십니까?**

- ① 150만원 이하
- ② 151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 ③ 25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 ④ 351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 ⑤ 451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 ⑥ 551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 ⑦ 651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⑧ 751만원 이상 850만원 이하
- ⑨ 851만원 이상 950만원 이하
- ⑩ 951만원 이상

6.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전문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
- ⑦ 대학원 석사 졸업 ⑧ 대학원 박사 졸업

**7. 아래의 사다리 위에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위치한다고 생각해 보
십시오. 가장 높은 사다리 칸에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으
며, 가장 존경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위치할 것입니다. 반면 가장 낮
은 사다리 칸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교육을 적게 받았으며 가장 존경받
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위치할 것입니다. 전반
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 귀하께서는 본인이 아래의 사다리 칸 중 어
느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

하여 귀하께서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의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



8. 귀하께서는 노인과 함께 거주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께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아래 보기에서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조부모님 ② 부모님 ③ 형제, 자매 ④ 배우자
⑤ 해당없음 ⑥ 기타 : ()